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8160.59	↓ 코스닥	1002.44
	(-478.82)		(-47.29)
↑ 금리 (미국 3년)	3.882	↑ 환율 (원/달러)	1559.00
	(+0.024)		(+29.30)

# metro® 경제

스페이스X  
12일 나스닥 입성  
115조 달러 몰리나  
0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T 위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시구 및 시타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젠슨 황, 네이버·두산 등 '간부' 확대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자 나서 최태원·정의선 등 주요인사 회동 오늘 양재 현대차그룹 사옥 방문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기업 간 '밀월'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방한 이후 e스포츠 게임단 T1 방문, 삼겹살 회동, 예능프로그램 출연, 프로야구 시구(두산)로 나서는 등 엔비디아 브랜드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를 높였다. 또 지난해 '간부 회동'을 통해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 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데 이어 이번에는 두산그룹과 네이버 등 우리나라 대표 빅테크는 물론 로봇 기업까지 '간부'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

을 의미하는 93번을 새긴 두산 유니폼을 입고 두산 베어스 구단주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 창립 연도인 1896년을 의미하는 96번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들어섰다.

이들은 시구와 시타에 앞서 대기실에서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이 그동안 로봇 및 자동화 분야 사업을 키워 온 만큼 이날 만남에서 엔비디아와 미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 국내 계열업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황 CEO는 이날 점심 서울 을지로 우래옥에서 정의선 회장과 오찬 회동했다. 황 CEO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을 방문해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피지컬 AI 전략 등을 듣고 양사의 협력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관련

전략적 동맹을 맺은 만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인프라 도입을 넘어 양사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억 달러(약 4조 6000억원)를 투입해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 현대차 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관련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한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강남구 간부차킨 삼성점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주요 사장단과 회동을 진행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SK그룹과의 협업은 주목할 만하다. SK그룹은 엔비디아의 제조 AI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해 제조 AI 클라우드 구축에 나선다. 제조 AI는 자동차, 로봇 등 물리적 형태의 실물 기기에 적용하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공장 등에 활용하는 AI 기술을 말한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李, 총리 후보에 한성숙 지명

“IT기업 대표·中소장관 경험 바탕 시대적 과제 시대전환 완수 적임자”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로,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을 지명했다. 여성 총리 지명은 2006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약 20년 만이다.

강원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전했다.

강실장은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의 일부가

### m-커버스토리

#### 야간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족쇄 풀리나

유통법 개정안 처리 속도

전통시장 보호 명분 14년 된 법 ‘규제 사각’ 이커머스 공룡 키워

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보다 오프라인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역차별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미 국내 온라인 유통 비중은 전체 시장의 60%를 넘어선 상태다.

실제 수치로도 규제의 비대칭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에 묶여있던 기간 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공룡 쿠팡의 매출은 2012년 845억 원에서 지난해 49조 1197억 원으로 약 60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의 대표 주자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같은 기간 매출 정체와 점포 구조조정,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통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규제 완화 논의가 하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관련기사 3면>

이로써 선거기간 표심을 의식해 멈춰 섰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내 온라인 야간배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선택으로 입법 지연되는 사이 고착화된 온·오프라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유통법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4년간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온

## SAMSUNG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2026. 06. 08 ~ 07. 05

구매금액 20%	제품 구매 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증정 소상공인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small>*동일 품목당 2대까지 신청 가능, 데이코, 하만, 소모품,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 제외 *이동통신사 구매 제품은 모델별 정액으로 지급 (모델별 지급금액은 삼성닷컴에서 확인)</small>
K-Hero 혜택 30%	국민께 봉사하는 K-Hero 분들에게 (군인 및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10% 추가 혜택 <small>*삼성전자 패밀리룸에서 대상 모델 구매금액의 10% 추가 혜택 (구독 제외)</small>
구독료 지원 6개월	AI 구독클럽 6개월 구독료를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지원 <small>*PC/Tab/모니터 4년, 로보청소기 5년, 그 외 TV 및 가전제품 6년 가입 한정 (스마트폰 제외)</small>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을 참조해주세요



5대 은행, 주담대 금리상당 7.3% 돌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39~7.33%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고정금리 상단이 7.3%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0월 말(7.33%) 이후 3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뉴시스

## 美, 이스라엘 첩보 경계... 동맹 이상신호

일각선 상호간 보안조치 강화 관측

중동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간 동맹전선의 균열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 이란전쟁에서 엇박자를 보여 왔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간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NBC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대미 첩보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는 레바논 헤즈볼라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NBC는 5일(현지시간)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방첩 위협 수준을 '크리티컬'(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전·현직 관료 3명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 내 비밀활동 및 의사결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이 같은 이스라엘의 첩보수집 활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정보국은 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인적 정보활동과 기술 정보수집 능력을 모두 '심각' 수준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고서에 나열한 것으로 전

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이 보도 전체는 사실과 다르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스라엘 대사관도 "미국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스라엘은 미국 기관은 물론 미국 정부 관료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냈다. 또 정보수집 대상은 동맹국이 아닌 적국이라고 부연했다.

전·현직 미국 관료는 동맹국 간 정보수집 활동은 빈번히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근 행보는 통상의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상대방에게 '미쳤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 내용을 시인했다.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위해 대 이란 외교협상을 추진해 온 데 반해, 네타냐후는 이란 영토 공습 재개와 헤즈볼라 압박 강화를 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 간 상호 방문이나 접촉 과정에서 보안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AI 혁신 등 성장·민생 책임질 책임자 판단"

>> 1면 '李, 총리 후보에 한성숙'서 계속

또한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지면 반도체 호환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려도 과히 틀리지 않다"고 했다.

1967년 경기 의정부 출생인 한 후보자는 1989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문지 편집 기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기업 엠프스창립, NHN(네이버 전신)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서비스1본부장,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5년 간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기술 기반 성장을 주도했다. 웹툰, 웹소설 콘텐츠 확장에도 집중한 끝에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한 후보자는 AI 혁신과 또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또 중기부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그 바탕에 민간에서 쌓은 혁신마인드와 개혁의지, 그리고 모두가 성장해야 된다는 상생의 철학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정부, 장특공·보유세 손 보나 부동산 시장 '세법개정' 술렁

지선 마무리... 세제개편 가시화  
李 대통령, 비거주자 감세 비판  
종합부동산세 등 도마 위에 올라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세법개정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관련 세제 해택에 대해 지적을 반복한 만큼 세제 개편에도 반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유예가 종료된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개편과 함께 보유세 강화,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증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축소하는 법안이 복수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주택도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2년 이상(공제율 16%)부터 10년 이상(공제율 80%)까지 거주기간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토지나 건물, 조합원입주권 등 비주택 자산의 경우 공제를 아예 폐지



지난 달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토록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뀌기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비거주 투자용 감세는 투기 관장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버티기 예상 보도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등록임대사업자 해택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의무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의무기간이 끝났더라도 양도세 증가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증가 제의를 불합리하다며 지적한 이후 관련 부처장들도 연달아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연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 AI 활용 근무자, 평균 업무시간 3.8% ↓

한은 AI 도입 초기 3년 효과 분석  
전문직·사무직 중심 시간절감 효과  
생산성 연결 미흡... 정책설계 관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뚜렷하지만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개별 작업의 효율은 높이고 있지만 업무 흐름 개선과 조직 구조 변화, 인력 재배치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이른바 '생산성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7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의 BOK이슈노트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는가? 초기 3년의 효과 분석'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근로자의 평균 업무시간은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주당 약 1.5시간을 절감한 셈이다.

연구진은 절감된 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다시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적 생산성 향상 효과가 약 1.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AI가 적어도 개별 업무 단위에서는 생산방식을 바꾸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사무직, 관리직에서 시간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작업별로는 교육자료 개발, 통계분

석, 모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지적·비정형 업무에서 AI 활용 효과가 두드러졌다. 업무 조율이나 장비 운용처럼 고맥락 판단이나 물리적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시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 절감이 곧바로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절감률과 업무처리량 증가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0으로 나타났다. AI를 통해 일이 빨라졌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산출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를 '생산성 단절'로 설명했다. AI가 문서 작성, 데이터 정리, 분석 보조처럼 개별 작업의 효율은 높였지만 절감된 시간이 고부가가치 업무로 재배치되지 못하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 구조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집단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 전문직, AI 고강도 사용자 등에서는 시간 절감이 실제 업무처리량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성과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거나 업무 자율성이 높은 경우 AI를 통해 아낀 시간을 추가 업무나 업무 고도화에 투입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의 AI 확산이 기업 단위

의 체계적인 업무 흐름 변화보다 개별 근로자 단위의 활용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실제 기업의 AI 활용률은 2024년 기준 9.6%로 근로자의 업무용 생성형 AI 활용률 51.8%와 큰 격차를 보였다. AI 사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업 조직 전체가 AI에 맞춰 재설계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현재 AI가 '효율성'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아직 '생산성' 단계로 충분히 전환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범용기술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환 과정으로, 과거 정보통신기술 확산기에도 생산성 개선이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정책 방향도 단순한 AI 보급 확대보다 AI를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화된 업무에서는 AI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중심축으로 배치하고, 절감된 시간을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옮기는 조직 차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관찰되는 생산성 단절은 기술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범용기술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환 과정"이라며 "향후 정책 목표는 AI 확산이 아니라 효율성 증가를 생산성 증가로 전환시키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서울선 야장 풀고, 경기도는 공공앱 확대... 내수 숨통 트이나

## 지자체 소비공약 시동

서울 야간경제 상생특구 추진  
홍대·을지로·성수·여의도 겨냥  
야장·도로점용 규제 완화 기대  
업소용 주류 매출 반등 주목

경기 배달특급 고도화 추진  
인천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부산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민간 플랫폼엔 경쟁 압박 변수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내놓은 지역 맞춤형 경제 공약들이 본격화되면서 외식·주류업계와 플랫폼 시장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거시적 변화와 함께 각 지자체별 소비 진작 정책이 하반기 내수 진작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즉각적인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곳은 식품 및 외식·주류업계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야간경제 상생특구' 조성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홍대, 을지로, 성수, 여의도 등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그간 행정 규제에 묶여 있던 야외 영업(야장)과 도로 점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고 심야 소비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국내 주류 시장은 유흥 채널의 침체와 헬시 플레저 트렌드, 술을 멀리하는 '소비 큐리어스(Sober Curious)' 문화 확산으로 구조적인 부진을 겪어왔다.

소비 큐리어스란 '술에 취하지 않은'이란 뜻의 '소비'와 '궁금함'이란 '큐리어스'를 합친 용어다. '술을 꼭 마셔야 하는'라는 의문을 품고 건강한 삶을 위해 술을 멀리하는 문화를 뜻한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월간 음주율은 57.1%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5만 1000kl로, 2014년 380



오세훈 국회의원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만8000kl에서 10년 새 17.3% 줄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야외 영업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의 상권 체류 시간이 늘어나 맥주나 하이볼 등 업소용 주류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반겼다.

다만 소음 및 위생 기준 위반 시 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의 엄격한 제재안도 함께 마련되어 제도권 안에서의 질서는 확장이 과제로 꼽힌다.

민간 배달 플랫폼과 대형 이커머스 업체는 야당 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경기·인천·부산 등 광역 지자체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지역화폐 확대와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고도화를 약속했고,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사랑상품권'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전용 물류 인프라 개선을 전면에 내걸었다. 부산의 전재수 당선인 역시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대를 골자로 한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이같은 지역화폐 및 공공배달앱의 세력 확대는 할인 혜택과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지역 내 소비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골목상권에는 대형 호재다. 반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기존 민간 플랫폼에는

직간접적인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공배달 앱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서비스 고도화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판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거 공약들이 실제 시장의 모멘텀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추진하는 '야간경제 상생특구' 조성으로 홍대·성수·을지로 등 주요 상권의 야외 영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산 확보와 조례 개정 등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추경을 편성할지가 관건"이라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경우 외식·주류업계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플랫폼 업계에는 시장 경쟁 구도

를 다시 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과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하반기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 공감대 확산

>> 1면 '야간배송 허용 등...'서 계속

특히 최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대형 악재를 겪고도 올 1분기 매출 12조459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다.

이러한 독주 체제를 굳히자 정치권과 정부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당정은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가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에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하반기를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460여 개 점포가 야간 물류 거점으로 전환되어 지역 밀착형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수 있다. 자동화 물류센터 위주의 이커머스와 달리 포장·분류·배송 인력이 지역 기반으로 고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배송망이 닿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새벽배송 인프라가 확대되어 지

역간 소비 형평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을 잠재울 합리적인 상생안 도출과 지자체별 조례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고용 창출과 인프라 투자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원선 기자



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 ‘스페이스X’ 115조 달러 몰릴까... 자금 이동에 증시 ‘흔들’

## 오는 12일 나스닥 입성

공모가 135달러... 기업가치 2716조 코스피 급락, 스페이스X 영향 추정 상장 성공 시 신규자금 촉매제 전망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12일(현지시간) 나스닥 시장에 등판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시장은 세계 증시의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로 예상된다. 투자 자금을 단숨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국내 증시도 그 영향권에 들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고 오는 12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 주식 수는 약 5억5560만주다. 이를 적용한 기업가치는 약 1조7700억달러(약 2716조원)에 달한다. 완전 희석 기준으로는 1조8000억달러를 웃돈다. 조달 규모도 압도적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75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기록한 294억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 ◆ ‘1.8조 달러 블랙홀’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스페이스X가 기존 인공지능(AI) 성장주에 퍼져있는 자금을 얼마나 흡수할 지다. 최근 글로벌



오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등판한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증시는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근 1년간 31% 넘게 상승하는 등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어를 중심으로 한 AI 밸류체인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LS증권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8000포인트에서 1만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와 인플레이션, AI 투자 사이클 변화 가능성과 함께 스페이스X 상장을 대표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꼽았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AI 성장 사이클이 유지되고 개인 중심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대형 IPO 이벤트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가파른 신고가 경신 흐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스닥100 편입 시점도 자금 흐름을 바꿀 변수다. 나스닥이 최근 도입한 대형 공모주 대상 ‘팩트 엔트리’ (조기 편입) 제도를 활용하면 스페이스X는 상장 후 약 15거래일 만에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새로 풀리는 주식이 전체의 3~5%에 불과해 지수 추종 펀드의 의무매수 규모가 약 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스페이스X를 신호탄으로, 하반기 오픈 AI-엔스룩 등 초대형 비상장 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등판하는 ‘IPO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 세계 증시의 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 세 기업이 조달하려는 자금만 약 2000억 달러, 합산 기업가치는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월가 투자은행(IB) JP모건은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 지수흐름을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자’가 미국 대형 기술주(빅테크)에서 950억달러를 빼낼 것으로 추산했다. 상장 후 스페이스X 기업가치가 2조달러에 이르고 주식 절반이 유통될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다. 우리가 현실화하면 미국 빅테크는 물론이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 성장주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 스페이스X 투자 위한 차익 실현 관측도

지난 5일 코스피는 5.54% 급락한 8160.59에 마감했다. 장 초반 낙폭이 7% 가까이 커지면서 장중 8038까지 후퇴하는 등 8000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8000억 원을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 동안 69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20조원을 순매도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61조원)와 SK하이닉스(42조원)가 103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공모를 위해 최근 글로벌 1위 수준의 금등세를 보인 코스피를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115조원 블랙홀’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잔액이 8조달러를 웃도는 등 대기성 자금이 충분한 만큼 시장 전체를 흔들 수준의 수급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신규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주산업과 AI를 중심으로 성장주 투자 열기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스페이스X 상장을 두고 제기되는 폭락론은 과도하다”며 “대형 IPO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주식시장으로 추가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공급이 늘어나는 형국에 가깝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자금 이동에 따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정도의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의 IPO에 국내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공모 청약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스페이스X가 공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일본과 스위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일반 대상 ‘공모(Public Offering)’ 가능 국가로 포함됐지만, 한국은 기관·전문투자자 중심의 ‘사모(private placement)’ 방식만 허용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내수부진·고금리에 자영업자 ‘한계’... 개인회생·폐업 늘어

## ◆ 빚 갚기 어려운 사회

### ③ 내몰리는 취약차주 <끝>

생활밀착형 업종 소비 위축 직격탄 개인회생, 지난해 대비 13.5% 늘어 연체율 1.8%로... 폐업 100만명 돌파

#.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 정모(54)씨는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시기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로 버텼지만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식자재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빚은 수억원대로 불어났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지만 채무는 고스란히 남았다.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이마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절차를 찾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권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취약차주들의 상환 능력은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인콰이션 “연체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잠재부실”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5만50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8513건)보다 13.5%(6555건) 증가한 수치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4년 4월 4만4426건에

서 ▲2025년 4월 4만8513건, ▲올해 4월 5만506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것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 속에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늘었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면서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GF F 고용이슈리포트 2026-01호’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 위기는 소비 부진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 금리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평균 0.9%에 그치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됐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 기대가 있었지만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가 소비를 제약하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것이다. 음식점과 주점, 노래방 등 생활밀착형 업종은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온라인 쇼핑 확산 역시 오프라인 상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배달과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면서 전통적인 골목상권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금융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대출 규

모는 2020년 1분기 701조원에서 2025년 3분기 1072조원으로 370조원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상승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에서 1.8%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차입금이 고금리 국면과 맞물리면서 상환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높아진 것이다.

폐업도 늘고 있다. 국제청 국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과 비용 증가,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소득원이 사라진 가운데 채무만 남으면 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누리 기자 yul115@



# 물가 상승률 3%대...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힘받나

채권시장도 ‘출렁’... 민감도 커져 기준금리 2.75%로 인상 소수의견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면서 채권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연 2.50%에 묶여 있지만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주택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금리는 한은의 인상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월 2.6%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석유류다. 5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급등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부담이 국내 물가로 전이되면서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셈이다.

근원물가도 한은의 부담을 키웠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같은 폭으로 올랐다. 물가압력이 일시적인 석유류 가격 상승에만 그치지 않고 기초적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국면이다.

채권시장도 물가와 한은의 패괴적(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정책 선호) 메시지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일 전 거래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90%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10.6bp 상승한 연 4.174%, 30년물은 12.7bp 오른 연 4.133%를 기록했다.

시장금리가 흔들리는 배경에는 한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통화정책방향문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엔비디아, 韓 AI 기술센터 설립도 박차

## >> 1면 ‘젠슨 황, 네이버 등...’서 계속

국내 게임업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경영진과 회동을 갖고 AI 게임 개발과 시뮬레이션, 피지컬 AI 등 미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0월 황 CEO 방한 당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차기작 ‘아이온 2’와 ‘신더시티’를 선보인 바 있다. 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국내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과도 회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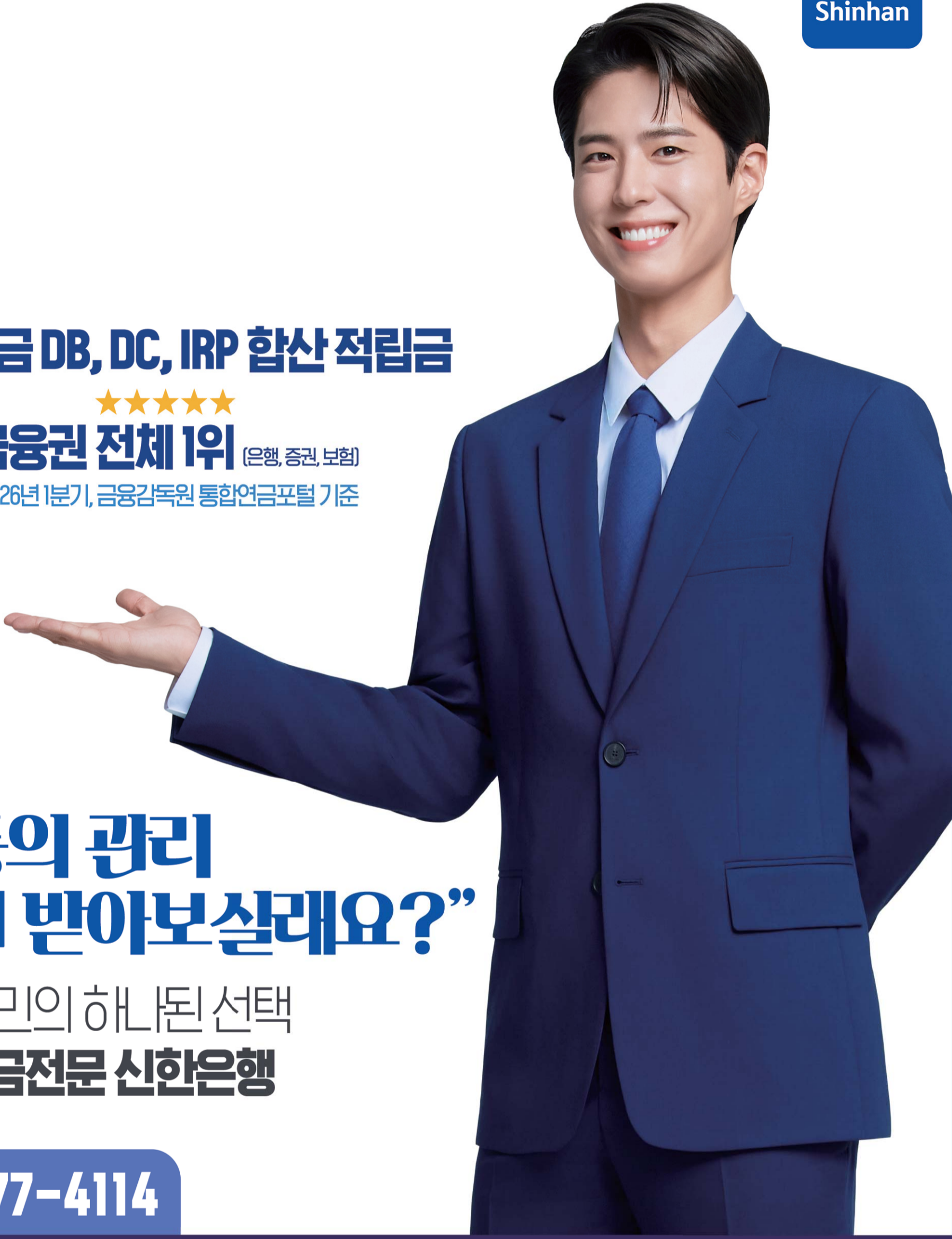
황 CEO는 방한 마지막 날인 8일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남을 갖고, 서울대 AI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한 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를 찾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회동한 뒤 당일 늦은 오후 또는 9일 오전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엔비디아는 한국 AI 기술센터 설립에 나선다. 엔비디아는 최근 서울 근무 조건으로 AI 기술센터 소속 피지컬 AI 담당 솔루션 아키텍트 채용 공고를 올렸다. 채용 분야는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다. 황 CEO는 “한국의 AI 연구 엔지니어, 로봇 공학자들을 채용 중이며 이들은 우리의 모든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며 “AI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를 아낀다면 이곳에 일하러 오라고 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퇴직연금 DB, DC, IRP 합산 적립금



**금융권 전체 1위** (은행, 증권, 보험)

\*2026년 1분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 “1등의 관리 한 번 받아보실래요?”

우리국민의 **하나된 선택**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 **1577-4114**

※-(DC,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 ~ 0.45% 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1741호 (2026.04.15 ~ 2027.04.14).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6-11660-1호 (2026.04.15 ~ 2027.04.14)

# 野 장동혁 “재선거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 즉각적 회담 요구”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지속  
헌법 규정 자유선거 원칙 무너져  
재선거, 국민 요구 수용하는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할거나 맡겨나를 결정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재선거를 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잘못됐고, 오염됐고,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가 인정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대중 뭉개고 가려 한다거나, 선관위 직원 100명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이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 이 분노를 피하려 한다면 이 분노가 결국 정치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를 계속한 것만으로도 헌법이 규정한 자유선거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다.

또 “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이송한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일련번호도 없는 투표용지에 손으로 번호를 적어넣었다. 이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투표용지가 정말 내가

찍은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정권은 개표 중지를 외치는 시민을 짓밟고 투표함을 강제로 꺼내갔다”라며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한지, 뭘 감추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 직접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래대 민주당 대표에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 출범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 원 구성이 먼저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많은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과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與, 지선 국정조사 착수 선관위 전면 개혁 추진

한병도 대표, 오늘 요구서 제출  
9명 위원 구성해 진상 규명  
별도로 선거제도 개혁 TF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의장계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몫 국정조사 위원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희·모경중·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으로 꾸린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을러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식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

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에 가자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기관”이라며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뉴시스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하루 늦춘다

성일종 의원 연기 요청 수용  
모바일 투표 허용 여부 주목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당초 공고했던 9일에서 하루 늦춰 오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도읍(4선·부산 강서)·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정점식(3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9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6일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당권파가 지지하고 있는 정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속도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성 의원은 공개적으로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의원, 송 전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 정점식 의원. /뉴시스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하루 늦춰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며 “(면담에서) 이견은 없었고, 여러 일정을 보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오는 11일 또는 12일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는 “다들 일정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선거 모바일 투표 허용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당헌상

에서 원내대표(선거)에는 적용 안 했는데, 해외 출장 간 의원들도 모바일로 투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 부분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운영 지도부를 뽑는 것이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한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 김여정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北 노동당 중앙위 총무부장)

미·중 정상회담 비핵화 합의설 부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 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미·중 정상 회담에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측 주장을 부인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5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자국 언론의 논평요청에 답변

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동된 목표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류포놓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 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우리는 그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 주권과 안전에 대하여, 가장 신성히 지켜져야 할 국가헌법에 대한 불손한 위헌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후퇴하려는 미국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며 그 누구도 미국의 일방적인 수사성 발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취임 1주년’ 李, 국정 운영 청사진 공개

국정 2년차 비전·2기 내각 구성  
부동산 이슈 등 현안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10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 차 비전과 2기 내각 구성, 부동산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함축했다.

키 비주얼(Key visual·핵심 장면)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빛’은 숭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도전이 전 세계의 표준과 모범이 되는 새로운 미래와 포부를 상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 차 국정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1주년 기자회견은 취임 후 네 번째 기자회견으로,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이 이뤄진다.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됐다. 정보현(이화여대 경제학과 4학년), 선우영현(인하대 기계공학과 4학년)씨가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견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의 보완수서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국정 쇄신과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주 언급하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관심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공급 방안과 함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KTV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예진 기자 syj@



#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 ‘반도체 쇼크’ 가상자산 급락… 비트코인 일주일새 16.8% ↓

비트코인 1BTC당 6만1666달러  
이더리움·바이낸스 주간 21% 하락  
전문가 “당분간 가상자산 약세”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기업 투자자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가상자산 선호가 꺾였고,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으로 촉발된 ‘반도체 쇼크’에 위험 자산의 선호도 꺾인 영향이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가상자산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께 1BTC당 6만1666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과 비교해 약 1.64% 상승한 가격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 이상 내려앉은 지난 일주일의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 데 그쳤다. 7일 전과 비교한 가격 하락폭은 16.8%, 지난 한 달의 하락폭은 22.5%에 달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가격도 약세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따눔시

움(ETH)의 주간 가격 하락폭은 21.5%에 달했으며, 3위 바이낸스(BNB)도 지난 한 주간 21.3% 하락했다. 4위 리플(XRP)과 5위 솔라나(SOL)는 각각 16.8%, 23.3% 내렸다. 특히 이더리움은 작년 8월 기록한 최고가와 비교해 67.8% 하락해, 주요 가상자산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금이 증권가로 이동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해온

일부 기업도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현물 ETF가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분기 말 30만 BTC를 넘겼던 기관투자자의 ETF 보유고는 최근 25만 BTC 수준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업

스트래티지는 지난 1일 비트코인 32BTC를 매각했다. 매각 이유는 배당금 지급 재원 마련을 제시했다. 매각 규모는 전체 보유고의 0.004% 수준에 불과했지만, 스트래티지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주요 가상자산 기업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약 5% 하락했다.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촉발된 ‘반도체 쇼크’도 가상자산 가격의 기대를 낮췄다.

브로드컴은 지난 3일(현지시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측치를 웃돌았지만, 3분기 AI(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전망치로 시장 기대(170억 달러)에 못 미치는 160억 달러를 제시했다. 가상자산 가격은 AI·IT 등 주요 기술주의 등락을 반영하는 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을 지나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상자산 가격도 함께 하락했다.

떨어진 금리인하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렸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투자 자산은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고용보고서에서 지난 5월 한 달간 비농업고용이 17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고용이 시장 전망치인 8만명을 2배 이상 웃돌면서, 지난해 상호관계 영향으로 얼어 붙었던 미국 고용시장이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동 사태 영향에 미국 내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상자산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AI-반도체주의 가파른 하락에도 주식 선호 흐름이 여전히

가상자산 인프라 회사 루트스톡랩스의 리처드 그린 기관 이사는 “기관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가상자산 매도를 촉진하고 있다”라면서 “스페이스X를 포함한 여러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1550원 환율… 신현송, 외환·금리 ‘시험대’

외국인 주식 매도·NDF 수급 쏠림  
‘원화 약세’ 글로벌 달러 흐름과 괴리  
한은총재 ‘환율쏠림 대응’ 검증 관심

원·달러 환율이 야간거래에서 1560원선까지 넘어가면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대응과 기준금리 경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달러 강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원화 약세에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수급 쏠림까지 겹치면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환율 쏠림 대응 메시지가 현실 검증을 받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주간거래 중장중 1549.1원까지 올라 1550원선에 근접했다. 주간거래 증가는 전 거래일보다 9.4원 오른 1539.1원으로 마감했다.

상승세는 야간거래에서 더 가팔라졌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2시 기준 1559.0원에 마감했다. 5일 주간거래 증가보다 19.9원 더 오른 수준이다. 장중에는 한때 1561.5원까지 치솟아 심리적 저항선인 1550원과 1560원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외국인 매도·NDF 쏠림 겹쳐

이번 환율 급등에서 주목할 대목은 원화 약세가 주간거래부터 글로벌 달러 흐름과 괴리를 보였다는 점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5일 주간거래 당시 99.352로 전날보다 0.089 하락했다.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 원화가 유독 약한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후 야간거래에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인덱스가 100선을 넘어가며 환율 상승 압력이 추가로 커졌다. 주간거래에서는 원화 자체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야간거래에서는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1560원선 위로 밀려 올라간 구조다.

원화 약세의 직접적인 압력은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서 나왔다.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521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순매도는 지난달 7일 이후 20거래일째 이어졌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가는 역송금 수요가 커질수록 원화 약세 압력도 높아진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차액만 달러로 결제하는 역외 선물환 거래다. 국내 현물환시장보다 거래 주체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최근 지적한 “피라미드형을 흐르는 현상”도 이와 맞닿아 있다.

◆ 한은 ‘금리 대응’ 복잡해져

고환율은 물가 경로도 혼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3%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원화와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석유류뿐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며 한은이 경계하는 2차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다.

기준금리 경로와의 연결성도 커졌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과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환경이다.

시장에서는 당국 대응 여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1560원선을 넘어선 환율은 신현송 체제 첫 외환시장 시험대가 됐다. 달러인덱스와 괴리된 원화 약세, 외국인 주식 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 NDF-연장거래 수급 쏠림이 맞물리면서 환율은 물가와 금리, 금융안정을 동시에 흐르는 변수로 떠올랐다.

/김주형 기자 gh471@



한 시민이 서울 시내에 있는 저축은행 지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시

## 저축은행, 中企대출 확대… ‘포용금융’ 강화

1분기 中企대출 43.2조, 1.2조 ↑  
전체 여신 증가분의 80% 차지

저축은행 업권이 전 분기 대비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나섰다. 정부 및 금융 당국의 포용금융 확대 주전에 따라 서다. 특히, 1분기 중소기업 대출이 1조원 이상 늘어나며 전체 여신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중기 대출 총액은 4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42조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여신 증가분(1조5000억원)의 80%가 중기 대출이다.

앞서 저축은행 중기 대출 잔액은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지난 2023년 1분기 약 65조원을 기록하던 중기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약 42조원까지 떨어졌다. 3년 새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연체 위험이 높은 중기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해 왔던 탓이다. 실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연체율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2022년 6월 1.93% 수준이었던 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6월 5.76%까지 증가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저축은행의 중기대출이 다시 증가한 배경에는 금융 당국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중

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지역별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진정한 경쟁력은 지역의 고객과 직접 마주하며 쌓아온 관계형 금융과 지역 밀착형 영업에 있다”며 “차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독보적인 안목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기 대출액 규모를 가장 크게 확대한 곳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다. 전 분기 대비 2148억원 확대됐다. 오케이저축은행(+1769억원), 애뮤온저축은행(+1536억원), 대신저축은행(+1102억원)도 1000억원 이상 중기 대출을 확대하며 뒤를 이었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에서는 대체로 축소 흐름이 나타났다. 신한, 우리 금융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의 중기 대출액은 급감했다.

대표적으로 KB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4035억원이던 중기 대출 취급액을 올해 1분기 2696억원으로 줄였다. 감소 규모는 1339억원이다. 하나저축은행도 9043억원에서 8269억원으로 마이너스(-)774억원을 나타냈다. BNK저축은행, IBK저축은행도 각각 -335억원, -3억원씩 대출 규모를 줄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기 대출 확대 기조와 더불어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재진 기자 wotjs4187@

## 둘째주, 전국 9개 단지서 2000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일반물량 1193가구 분양

6월 둘째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0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물량 1193가구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C-27블록(공공분양), 강

원 강릉시 흥제동 ‘강릉성보필리오더센터 탈힐즈’,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필리피아’ 등에서 청약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C-27블록에 공공분양아파트 화성동탄2C-27블록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20층, 7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아파트 473가구와 오피스텔 90실로 조

성된다. 이 중 공공분양주택 473가구를 이번에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가는 기본형 기준 5억2941만~6억1737만원 수준이다. 전매 제한기간은 3년,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되며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모텔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2BL’,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K-반도체 투톱, 실적개선 본궤도... 합산 영업이익 150조 전망

(2분기)

삼성·SK, 고부가 반도체 시장 주도  
HBM·서버용 제품 등 생산능력 확대  
증권가, 실적추정치 지속 상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 M16 전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2분기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낸드플래시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양사 합산 영업이익은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정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7조820억원, 85조8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4조6760억원)보다 1735% 급증한 수준이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57조2328억원)과 비교해도 28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조7289억원, 62조4215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0조67억원) 대비 524% 증가했으며, 직전 분기(37조6103억원)보다 24조원 이상 확대됐다.

양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48조원을 웃돈다.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2분기 호실적 전망의 배경에는

1분기부터 이어진 가파른 회복세가 자리한다. 삼성전자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8700억원, 영업이익 57조23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새로 썼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9.2%, 영업이익은 756.1%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42.8%에 달했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AI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매출

과 영업이익 모두 전 분기 대비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HBM4가 계획대로 양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도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률은 7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405% 증가한 수준이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서버용 D램과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수익성이 큰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일반 D램 평균판매가격(ASP)이 60% 중반, 낸드 ASP가 70%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센터용 범용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메모리 가격 강세와 공급 부족 국면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HBM과 고용량 서버용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며 호실적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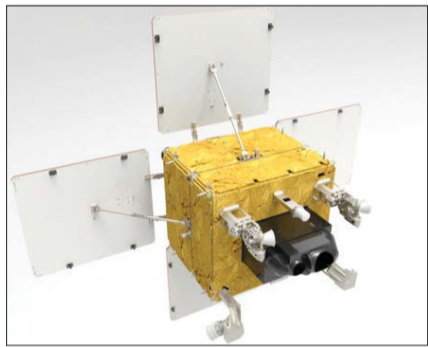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우주로 향하는 방산업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나서

KAI 위성 개발·운영 역량 돋보여  
한화시스템 1m급 SAR 발사·운용  
LIG D&A 정지궤도 위성분야 존재감



KAI가 총괄주관기관으로 개발한 차세대중형 위성 3호.

정부가 발사체와 위성을 직접 개발하던 시대를 지나, 민간기업이 우주 사업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기 체계종합 역량을 앞세운 KAI, 발사체부터 위성 서비스까지 연결한 한화, 국방 전자체계에 강점을 가진 LIG D&A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우주 사업의 외연을 넓히며 뉴스페이스 시장 선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사업자 선정이 예정된 다부처 초소형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체계개발 사업이 국내 뉴스페이스 경쟁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초소형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위성 4기를 구축해 한반도 감시 주기를 기존 2시간 수준에서 20~30분 수준으로 단축하는 프로젝트로, KAI와 한화시스템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KAI는 위성 개발과 운영 역량을 앞세

우고 있다. KAI는 지난 1일 자체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3호(CAS500-3)의 초기 운영을 마치고 운영 권한을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이관했다.

KAI는 아리랑·천리안·차세대중형위성 사업과 군 위성 사업을 통해 위성 플랫폼 개발, 체계종합, 운용 개념 수립 경험을 쌓아왔다. 업계에서는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무인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체계종합 역량이 위성 개발·운영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한화시스템도 하반기 다부처 초소형 SAR 위성 사업 수주전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자체 개발한 1m급 SAR 위성을 이미 발사·운용 중인 데다 연내 0.25m급 SAR 위성 추가 발사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우주센터 기반 양산 인프라와 위성 데이터 분석 역량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방산 전자체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우주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함정 전투체계(CMS), 다기능레이더(MFR), 천공-II 레이더, KF-21 능동전자주사식위성배열(AESA) 레이더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군 정찰위성용 SAR 탑재체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탑재체, 초소형 SAR 위성 체계 등을 개발 중이다. 저궤도 위성과 차세대 통신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영상 데이터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 세트랙아이의 위성, 한화시스템의 SAR·위성통신·데이터 서비스를 묶어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

고 있다.

LIG D&A는 정지궤도 위성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인 천리안 위성 5호(GK5) 사업에 착수했다. 국내 첫 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개발 사업으로 LIG D&A는 위성체 개발·시험·체계통합을 총괄하고 미국 L3해리스는 기상탐체 핵심 설계·개발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LIG D&A가 유도무기와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C4I), 항공전자 분야에서 축적한 국방 전자체계 통합 경험을 우주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주사업은 위성 제작뿐 아니라 발사체, 탑재체, 지상국, 데이터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산업"이라며 "항공·방산 기업들이 기존 사업에서 확보한 체계종합과 센서, 통신 기술을 우주 분야로 확장하면서 기업별 경쟁 영역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 삼성전자, 노노갈등 고조 내부결속 핵심 과제 부상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면서 향후 사업부별 이해관계 차이를 조율하고 내부 결속을 회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노갈등이 삼성 노조 지형 재편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5만838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단체협약 최종 타결 이후 일주일 만에 조합원 수가 7만6000명 수준에서 1만7000여명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12만8881명)의 절반인 과반 기준선 6만4400명을 약 6000명 밑도는 규모다. 이로써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조합원 이탈은 임단협 타결 이후 불거진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 논란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뿐 아니라 반도체를 맡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이탈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면서 초기업노조의 교섭력 약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2:3 대 노조인 전삼노, 동행노조 등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같은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 간 조합원 기반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향후 교섭 대표권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노조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부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초기업노조가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직 내 결속을 회복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성과급 배분 체계와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불가피하다"라든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 철강·석화 등 업황개선 기대감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하향 언급  
중동발전 에너지 가격 상승 변수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동발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정책 실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산업용 전기요금(182원/kWh)이 중국·미국(120원)보다 높다며 하향 안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포항·광양·당진·울산·여수·대산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실제 산업계 부담은 크게 늘었다. 경총

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2024년 7차례 인상돼 75.8% 올랐다. 이는 주택·일반용 인상 폭의 약 2배 수준이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도 481억5000만원에서 656억7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매출 대비 비중은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해외 주요국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전력세를 약 97% 인하했고, 중국은 일부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6% 낮췄다. 영국도 오는 2027년부터 1만개 이상 제조기업의 전기요금을 최대 25% 인하할 계획이다.

전기료가 제품 원가의 약 10%를 차지하는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업황 회복이 우선이라

는 입장이다. 금호석화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수요 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해소가 더 시급하다고 봤다. 포스코는 자가발전 비중이 높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기로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도 긍정적 신호로 보면서 정부 세부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첨단산업도 전력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에쓰오일의 1분기 전기광열비는 전분기 대비 6.1% 늘었고, 반도체·데이터센터 업계도 AI 확산으로 전력·냉각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인하 여력을 두고는 신중론도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세가 전력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한국가스공사

에 따르면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지난 5월 7.5%, 6월 7.9% 연속 인상됐다. 전력도매가격(SMP) 역시 지난 1월 103.54원에서 5월 121.91원으로 상승했다. LNG 장기계약은 약 5개월 후향해 2~3월 급등분이 7~8월까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향후 LNG 가격 부담이 쉽게 꺾일 것이라 보장도 없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카타르·UAE 공급 차질 시 세계 LNG 거래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쟁 장기화와 여름철 수요가 겹치면 LNG 구매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석화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발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2~4년 뒤 산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 “54년 금고 외길... 스마트 보안가전 전문기업으로 도약”

##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

1972년 창업, 국내시장 80% 점유  
남편 사별 후 회사 경영 총괄  
올해 파주상의 7대 회장 취임

상의 통해 지역 동반자 다짐  
AI·IoT 활용, 플랫폼 기반 전환  
‘루셀’ 브랜드로 대중화 이끌어

삼성물산 ‘홈닉’ 연동 제품 준비  
100개국 수출... 올해 800억 목표

”

50년 넘게 금고 제조 외길을 걸어오며 ‘최초’라는 수식어로 금고업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토종기업이 있다.

‘K-금고’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지역만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100여개 국에 이른다. 전통 사무용 금고에서 시작해 가정용 인테리어 금고, 프리미엄 금고 등 라인업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명문장수기업 등으로 선정, 100년을 향해 가면서 금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IoT 금고까지 선보이는 등 ‘플랫폼 기반 스마트 보안가전 전문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금고시장에서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선일금고제작.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있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금고의 역사가 바로 선일금고의 역사다. ‘1가구 1금고’로 전국민 금고시대를 열고 있는 것도 선일금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선일금고를 이끌고 있는 김영숙 대표는 올해 4월 말 파주상공회회소 7대 회장에 취임했다. 파주상의 18년에 여성 회장은 김대표가 최초다.



“남편이 파주에서 상공회회소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2024년 회사 공장에 불이 났는데 파주에 있는 기업인들과 이웃들이 발벗고 도움을 줬다. 식당까지 타버려 밥차, 커피차 등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다. 감사한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상의를 통해 봉사하고 지역과 동반자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내가 직접 나선 것이다. 파주상의는 만장일치로 김 대표를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의 고향은 파주 봉일천이다. 태어난 고향에서 기업을 일구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며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선일금고는 1972년 탄생했다. 남편인 고 김용호 회장은 ‘조선의

뜸, 일등’ 금고회사를 만들겠다고 사명을 ‘선일(鮮一)’로 지었다. 그 사이 세월은 반세기가 훌쩍 넘는 54년이 흘렀다.

창업주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 대표의 일상은 매일 매일이 도전이다. 반세기에 걸쳐 축적한 내화·방도 원천 제조 기술에 더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결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연결기술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 등에 있는 금고를 하나의 보안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하반기 출시될 AI기반의 IoT 스마트 금고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 금고 내부 보관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확인 추적 관리할 수 있다. 혹시나 외부의 힘으로 금고의 위치가 바뀌면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

과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귀금속이나 골동품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고 제조사에서 보안 플랫폼 회사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금고는 불에 타거나 도둑 등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금고는 내화와 방도가 필수다. 국내 KS 규격은 외부에서 927℃ 열을 1시간 가열 시 금고 내부 온도가 177℃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선일금고는 창업 초기부터 공개 내화 테스트를 거쳤다. 이 역시 국내 최초다. 2005년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절에 있던 선일금고 안의 국보급 문서, 도자기가 불에 타지 않고 멀쩡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선일금고가 만든 내화금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제 일색이었던 기존의 금고는 양문형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선일금고는 국

내 최초로 문이 한쪽인 외문형 금고를 선보였다. 전자식 금고를 내놓은 것도 우리나라에선 선일금고가 처음이다.

미국 UL 인증에서 내화·내충격에 동시 합격한 것도 금고업계에선 선일금고가 아시아 최초다. 고기능성 방도금고를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2015년 당시 SK텔레콤과 협업해 내놓은 IoT금고(V1)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후 LG유플러스와는 ‘V2’라는 이름의 IoT 금고를, KT와는 카메라 보안 금고를 각각 출시하기도 했다. 금고의 진화다.

김 대표의 도전으로 단단하지만 투박하 기만 했던 금고는 미술 작품 등과 만나고 첨단 기술이 입혀지면서 디자인, 기능, 색깔이 무한 확장하고 있다.

“여자가 금고를 만들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런데 ‘루셀(LUCCELL)’이라는 브랜드를 내놔야 할 땐 주변에서 안팔리는 금고를 내놔야 한다고 욕을 먹었다(웃음). 금고는 금고다워야 한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당초 선일금고의 제품은 독수리 마크가 있는 ‘이글세이프’가 주류였다.

그러다 ‘루셀’을 내놓으면서 가정용·프리미엄 금고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제꼈다. 금고 업계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한 후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매장에 금고가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TV홈쇼핑 등을 통해서도 금고를 팔기 시작했다.

전국 주요 지역에 있는 금고 전문 대리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금고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금고가 일반 가정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아예 입주민들을 위해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들어간 사례도 많다. 서울 두산서울숲트리마제(2017년 5월 입주), 서울 일원동 래미안 개포루체하임(2018년 11월 //), 울산 태화강 아이파크(2024년 1월 //), 인천 학익동 씨티오씨엘 3단지(2024년 12월 //) 등에는 마치 호텔처럼 옷장 속에 선일금고의 제품이 쏙 들어가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삼성물산의 홈닉 플랫폼 및 세대 내 유패드와 연동되는 IoT 기반의 스마트 보안금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서 “새 아파트 통합 보안 플랫폼과 완벽하게 연동된 보안금고는 빌트인 공급을 통해 입주자가 스마트 보안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닉’은 삼성물산이 선보인 아파트 주거 생활 케어 플랫폼으로, 홈 IoT 제어부터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비 조회·에너지 사용량 관리까지 단지 생활 전반을 하나의 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 Things)와 삼성물산 홈닉이라는 두 개의 글로벌·국내 플랫폼과 협업해 ‘커넥티드 리빙(Connected Living)’의 가치를 보안금고 영역에서 실현하겠다”며 “창업 55년의 유산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일금고는 지난해 6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파주 공장에 불이 난 후 주춤했던 생산과 판매가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연간 1만5000대 정도인 생산량을 내년까지 3만대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800억원이다.

/파주(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가 경기 파주에 있는 본사 쇼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원형사진) 금고 내부. /김승호 기자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2026년 6월 17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주제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 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등록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문의 2026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40	박수영 해양수산부 사무관 :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
강연	14:40 ~ 15:10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과장
	15:10 ~ 15:40	대상 글로벌 김치 마케팅 담당
	15:40 ~ 16:10	풀무원 글로벌마케팅본부장
	16:10 ~ 16:40	안병익 식신 대표 : 식신 데이터로 본 '외국인이 실제로 찾는 K푸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LG U+ “2030년까지 AIDC 수주 5조 목표”

차세대 AIDC 인프라 전략 발표  
구축속도, 전력·규모, 냉각 제시  
파주 AIDC, 200MW 전력공급 확정  
‘AI팩토리 오퍼레이터’ 도약 포부

LG유플러스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매출을 매년 20% 확대하고, 누적 수주 5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전력 용량, 냉각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7일 차세대 AIDC 인프라 전략 ‘에이스 온 트러스트(The AC E on Trust)’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전력 사용량과 열량 급증으로 인한 변동성을 극복하고,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간극에 따른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축 속도 ▲전력·규모 ▲냉각 효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표준 모듈형 데이터센터(PMDC)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설비를 표준화해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경기 파주에 위치한 LG유플러스 파주 AIDC 조감도.

/LG유플러스

실증(PoC)부터 하이퍼스케일급 규모까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파주 AI 데이터센터도 이같은 방식으로 구축 속도를 높였다.

특히 파주 AIDC는 200MW 규모의 전력 공급이 확정된 현재 수도권 내에서 최대 규모의 추론형 AI 데이터센터로 기능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파트너 및 자선운영사와 협력해 설계·구축·운영(DBO) 기반 맞춤형 공급을 병행하며 AI 전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파주 AIDC에서 활용하는 냉각 기술은 고밀도 GPU 환경에 최적화됐다. 국내 최

초 하이퍼스케일급에서 공기냉각과 액체 냉각을 동시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도입했다. NPU, CPU까지 모든 종류의 AI 칩을 냉각할 수 있다.

또 냉각 설비, 전력 설비 등 주요 장비를 LG 그룹 계열사와 협력해 ‘원(One) LG’ 생태계를 구축한다. LG전자와 구축한 액체냉각 설비는 GPU 칩에 전용 금속판을 부착하고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통해 액체를 순환시켜 열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자체 실증 결과 공기 냉각 보다 약 24%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있었다. 냉각수

를 만드는 공랭식 ‘프리쿨링 칠러’도 LG 전자로부터 공급받는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고성능UPS 배터리는 정전과 전압 변동 시 전력을 즉각 보정한다. 배터리 셀부터 팩까지 자체 설계한 다중 안전 구조가 화재와 열폭주 위험을 최소화한다. LS일렉트릭스와 공동 개발 중인 DC 800V 배전 시스템은 고전력 사용량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략은 데이터센터 무중단 운영역량이 기반이 됐다. 회사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서울 논현동에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열었다.

최종적으로 ‘AI 팩토리 오퍼레이터’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AI 데이터 센터를 서버 임대뿐만 아니라 GPU 지원 관리와 전력, 냉각 요소를 공장처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목표치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파주 AIDC를 핵심으로 2030년까지 누적 사업 수주 5조원을 달성하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6월 준공을 앞둔 파주 AIDC 1동은 현재 모든 계약이 끝난 상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 엔씨 오는 9월 ‘아이온2’ 글로벌 출시 예정

엔씨가 MMORPG 신작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 일정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엔씨는 7일 ‘아이온2’를 오는 9월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게임은 자체 플랫폼 ‘퍼플’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PC 버전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엔씨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게임 전시회 ‘서머 게임 페스트 2026’에 참가해 ‘아이온2’를 처음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 게임 전문 미디어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게임 핵심 콘텐츠를 시연하고 작품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아이온2’는 엔씨의 대표 지식재산권 가운데 하나인 아이온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MMORPG다. 엔씨는 이번 글로벌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외 사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KT ‘2026 월드컵’ 거리응원 행사

## 엔비디아 업은 네이버 ‘웃고’, 파업 앞둔 카카오 ‘울고’

네이버, 최근 한 달 주가 20% 올라  
엔비디아 협력 속 AI 경쟁력 기대감  
카카오, 같은 기간 약 13% 하락  
오는 10일 첫 파업... 갈등 장기화 우려

엔비디아와 AI 협력 기대감이 커진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창사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하며 주가 흐름이 극명하게 갈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20% 상승했다. 지난달 20만원 후반대였던 주가는 5일 종가 기준 25만5500원까지 올랐다. 반면 카카오는 같은 기간 약 13% 하락하며 4만원 초반대로 밀려났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주가 흐름이 최근 경영 이슈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한다. 네이버는 AI 사업 확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반면 카카오는 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해진·젠슨 황 회동 효과...AI 기대감 커진 네이버

네이버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배경으로 AI 사업 경쟁력 강화 기대감이 꼽힌다.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광고 등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하며 수익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회동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분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8일에는 젠슨 황 CEO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협력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추진 중인 글로벌 AI 팩토리 사업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속

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AI를 단순 서비스가 아닌 검색과 광고, 커머스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창사 첫 파업 앞둔 카카오...“골든타임 놓칠 수도”

반면 카카오는 노사 갈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 본사 기준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일부 계열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파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성과 보상 체계와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사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단기간

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개발과 조직 개편,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톡 중심 AI 전략과 자체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에 조직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는 AI 협력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반면 카카오는 파업 이슈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향후 주가 흐름은 AI 사업 성과와 노사 갈등 해소 여부가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 SKT, 대학생 시험기간 맞춤형 혜택 선배

‘0 week’ 아메리카노 할인 등 제공

SK텔레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SK텔레콤은 T 멤버십을 통해 시험기간 맞춤형 혜택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대학생 고객들의 의견을 서비스·마케팅에 반영했다. 제안 내용은 ▲학사 일정에 따른 운영 ▲시험기간 중 커피·디저트 혜택 강화 ▲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매달 운영하는 혜택 프로그램 ‘0week(제로 위크)’의 주제를 대학생 시험기간으로 정했다. 운영 기간을 매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한시 적용했다.

혜택은 매가MGC커피 아이스 아메리



SKT 모델이 ‘0 week’와 T 멤버십 커피드림 카’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카노 50% 할인 등이다. 이밖에 비나프레소, 투썸플레이스, 베스킨라빈스 등 커피·디저트를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또 T 멤버십 커피드림 카를 통해 현장에서 T 멤버십 인증 시 커피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 KT, ‘제로 트러스트’ 보안전략 고도화

행위 기반 탐지 시스템 등 도입

KT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고도화한다. KT는 전사 시스템에 보안 위협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체계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보안 인식 체계다. 회사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ZTNA) 솔루션을 통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검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협 사전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침해로 인한 피해 전이 및 확산 예방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위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

한다. 먼저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 시스템(EDR)으로 PC와 서버 등 개별 기기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를 분석한다. 네트워크 위협 탐지·대응(NDR) 시스템으로는 네트워크 전반의 비정상 트래픽과 공격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아키텍처도 고도화한다. 이는 공격자의 내부 침투 이후 보안 위협의 확산 경로를 통제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피해를 막는 기술이다.

올해 운영 안정성과 정책 검증을 거쳐 전체 업무 환경에서 시스템별 접근 및 통신 허용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KT 붉은악마와 광화문서 월드컵 거리응원 진행

KT가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6 월드컵’ 거리 응원 행사와 고객 프로모션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T의 전 국민 월드컵 응원 캠페인인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거리응원 행사는 한국 대표팀의 예선전 일정에 맞춰 6월 12일, 19일, 25일 총 3회 진행된다. KT는 국내 공식 월드컵 중계사인 JTBC와 협력해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 2기를 통해 경기를 생중계한다.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접속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영상이 미디어월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이 메시지는 멕시코 현지에서 결전을 준비 중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 당일에는 월드컵 응원가 사전 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KT는 다음달 19일까지 힘찬 응원, 쾌찬 혜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기간 내 전국 KT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이미지가 담긴 월드컵 응원 굿즈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매장 내 QR코드로 응원 메시지를 남긴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 S26 등 최신 스마트폰을 준다.

서울 흥대·강남·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주요 5개 도시의 KT 플래그십 매장에서는 국가대표 응원 포토존이 마련된다. 이곳에서 인증샷 이벤트와 미니 축구 게임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스

# 외국인 120조 순매도에 개미들 불안... 코스피 변동성 확대

삼전·닉스, 반도체주 103조 팔아  
코스피 하루 평균 변동률 3.9%  
전문가들 “이탈 아닌 차익 실현”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뉴스시스

서울 마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대 김모씨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을 갖고 있다. 최근 평가이익이 13억원 가량으로 올랐다. 김씨는 주식을 판 돈과 대출을 더해 꼬마 건물을 살 계획이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상가 매물도 둘러봤다. 김씨는 “주식이 언제까지 오르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적절한 시기에 정리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외국인이 받을 빼고 있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학 개미(국내 주식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반도체 주식 매도세에 발목 잡혔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이란 해석이 많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러다 개미들만 고점에 물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 ◆외국인 팔고 또 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 동안 69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올 들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약 120조원을 순매도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61조원)와 SK하이닉스(42조원)가 103조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고점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의 반도체 팔자에 코스피 변동성도 커졌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스피의 일간 평균 변동률은 3.9%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일 평균 변동률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의 일 평균 변동률 3.7%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5일 변동률은 4.0%까지 높아졌다.

코스피의 일 평균 변동률이 1990년 이후 4.0%를 상회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지난 1997년 11월~1998년 2월 외환 위기 당시 일 평균 변동률이 5.7%였고, 이어 2000년 6~11월 닷컴버블 붕괴 때 4.6%, 2008년 10~12월 금융 위기 7.4%, 2000년 3~4월 코로나 팬데믹 때 4.9% 등이다. 시장에서는 그 배경 중 하나로 우선 지

수 내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쏠림 현상이 꼽힌다. 두 종목의 합산 비중은 50%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외국인이 ‘반도체 팔자’에 나서자 개인들이 반도체 주가 방어에 나서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 매도 이유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종목과 비율 조정)을 꼽는다. 권순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과거보다 적은 물량만 매도해도 절대 금액 기준 순매도 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순매도는 한국 시장 이탈이라기보다는 차익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성격에 가깝다”고 했다.

외국인 지분율은 유지되고 있어서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

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지분율은 지난 5일 40.05%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9일 40.01%를 찍은 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 차익실현 과잉일 뿐, 한국 증시에 대한 구조적 비중 축소로 보기는 이르다는 의미다.

### ◆당분간 변동성 불가피

서울 중구에 사는 박수정씨(36)는 최근에 만든 마이너스통장에서 3000만원을 증권사 계좌로 보낸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샀다. 회사 동기 20여 명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 박씨는 “재테크를 안 하고 있으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져 마이너스통장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며 “외국인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받을 때면 손실이 날까 두려워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팔자’에 개미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졌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준을 보여주는 신용거래자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37조 7376억원으로 사상 최고(38조 2277억원) 수준이다. 빚투 수요 폭증 속에 지난달 전체 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한 104조 9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처음 증가 전환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 기준 3거래일 만에 전월 대비 9894억원 늘었다.

시장에서는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대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증시를 이끄는 두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가파르다.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5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88조 3029억원이다. 전 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328억원이다. SK하이닉스도 64조 3195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은 37조 6103억원이었다.

IB들의 한국 증시 낙관론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 3일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1만 200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주가는 선행 PER 5배 수준으로, 시장은 이 수익이 얼마나 오래 갈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일본 노무라증권도 1만 선을 전망한다.

그러나 들여다 봐야 할 변수도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증시 부양책 등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브로드컴이 다음 분기 실적 가이드스(전망)를 내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치(172억 달러)보다 낮은 16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불거진 ‘AI 거품’ 우려도 시장 변수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19년간 글로벌 인재 7944명 키웠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활동보고서  
해외교환 장학생 만족도 96.7%  
단순 지원 넘어 장학생 간 연결 도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지난 19년간 이어온 해외교환 장학사업의 성과와 미래세대 지원 활동을 담은 ‘2026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사업 실적을 넘어 청년 한 사람의 성장 가능성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재단의 철학과 그동안의 발자취를 담았다.

7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2007년 제1기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이후 올해까지 50개국에 총 7944명의 대학생을 파견했다. 미국·독일·중국·프랑스·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학업과 문화 교류를 경험한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쌓으며 성장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파견 인원은 2024년 479명, 2025년 479명, 2026년 507명으로 증가하며 사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만족도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끈다. 해외교환 장학생의 96.7%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95.4%는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87.7%는 전공 심화와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장학금 사용처 역시 생활비(61.8%)와 기숙사비(23.2%)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해외 체류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학금 넘어 네트워크로... ‘MEET-UP 프로젝트’ 확장

재단은 최근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장학생 간 연결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3년 시작된 ‘밋업(MEET-UP) 프로젝트’는 해외교환 장학생 선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뇌과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약 540명의 장학생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인

공지능 시대, 뇌과학으로 미래의 기회를 성찰하다”,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질문법” 등 실제 행사 주제와 현장 모습도 담겼다.

장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도 단순금전 지원을 넘어선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적용된 장학증서를 제공하고, 국가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굿즈도 함께 전달해 해외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51만명 지원한 인재육성 플랫폼... “가능성에 ON, 온기를 켜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해외교환 장학사업을 넘어선 미래세대 지원의 확장이다.

재단은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인 ‘청년 씨드온 프로젝트’의 대상을 가족 돌봄청년까지 확대했다.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금융교육과 자산 형성 프로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미지.

램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아름다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2000년 설립 이후 재단과 미래에셋 계열사가 추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누적 지원 인원은 51만 4307명에 달한다. 해외교환 장학생 7944명, 국내 장학생 4102명, 글로벌 장학생 5368명, 금융·경제교육 38만 5187명, 글로벌 리더 대장정 1만 4084

명 등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획득했고,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코리아 사회공헌대상도 수상했다. 지난해 재단의 총수입은 약 58억 3600만원, 총지출은 56억 2200만원이었다.

/허정윤 기자

## 올 시총 순위 대격변... 삼성전기 29계단 급등

이차전지·조선주는 뒷걸음질

시가총액은 투자자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개별 기업의 부침은 물론, 시장이 지금 어떤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

하고 있는지, 과거와 비교해 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삼성그룹주의 순위가 일제히 오른 반면, 이차전지·조선주는 줄줄이 내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우선주 제외) 가운데 7개 종목이 지난해 말 대비 순위가 바뀌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 10위인 KB금융만이 순위를 유지했다.

현재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성전기로 지난해 말 34위에서 이달 5위로 29계단 뛰었다.

이 기간 시총은 19조 470억원에서 131조 2370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인공지능용 MLCC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영향이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589%에 달한다.

삼성생명도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말 순위는 18위에 불과했지만 이달 7위로 11계단 올라 10위권 내 진입에 성공했다. 삼성전자가 주가 급등에 따른 지분가

치 재평가 기대가 번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삼성물산은 13위에서 8위로 5계단 올랐다. 삼성생명도 삼성물산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62%, 92% 급증했다.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퀘어 순위도 7위에서 3위로 올랐는데, SK하이닉스 주가 급등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기대로 주가가 오른 점이 영향을 줬다.

/신하은 기자 godhe@

# EU 역외보조금 심사 통과 한수원, 체코 원전사업 ‘청신호’

역외보조금 심층조사 미개시 통보  
약 24조 초대형 체코 국책 사업  
산업장관 “韓 원전 경쟁력 입증 성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치워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한 덤핑 수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체코 원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일 한수원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한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공식 통보했다.

EU 역외보조금규정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보조금)가 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심층조사는 역외보조금이 경쟁 왜곡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착수하는 절차로, 이번 미개시 결정에 따라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 차원의 보조금 리스크는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됐다.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한수원 측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성실히 협조해 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약 2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체코 국책 사업

이다.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프랑스(EDF) 등 경쟁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쟁사 이의제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취소·무효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6월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원전의 해외 신인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인허가 서류 제출과 부지 조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도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몽골, 19개월 만에 CEPA 협상 재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5차 협상  
상품양허 등 15개 분야 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정부가 리튬, 구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부족인 몽골과의 경제 영토 넓히기가 다시 속도를 낸다.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1년 7개월 만에 다시 본격 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몽골 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 관해진 통상교섭

실장과 몽골측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 대표로 양국 협상단 40여 명이 참석한다.

한-몽골 CEPA는 지난 2023년 12월 첫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24년 11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으나, 이후 몽골 측 사정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3월부터 양측간 재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과 몽골은 산업 및 교역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평가받는다. 세계적인 제조·기술역량을 갖춘 한국과 리튬, 구리, 희토류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이 풍부한 몽골이 손을 잡을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정부

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이번 5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서비스(화상)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5개 분과 전반에 걸친 본격적인 조율에 나선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몽골과의 CEPA는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진전을 도모함으로써,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기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해수부, 수입수산물 이력관리대상 확대

유통 투명성 확보하고 안전관리 강화

냉동 갈치·고등어 등 대중성 수입 어종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 확보와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통관 이후부터 최종판매 이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

가 발생할 시 신속한 경로 추적 및 조치가 가능하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을 관리 대상에 대거 포함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지난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 발표에 따라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또 기존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뱀장

어, 냉동 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9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 수산물을 양도한 후 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서 면으로 신고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KIAT, 3부원장 체제로 개편

미션 중심 책임부원장 체제 도입  
실무·전문형 인력 전진 배치  
AX 전환·지역성장 지원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정부 산업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KIAT는 기존 ‘4본부 9단 1센터’ 체계를 ‘3부원장 11본부장’ 체제로 전환하고, 실무·전문형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기능 중심 조직을 미션 중심의 책임체제로 전면 전환한 점이다. 산업혁신, 지역혁신, 경영혁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이행력과 대외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미션 중심의 책임부원장 체제를 도입해 정책 이행력을 높였다. 또 산업통상부와 기업 등 주요 고객과의 대외 소통 경로를 명확히 정비했으며, 기능과 업종을 재구조화해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산업혁신 부원장’은 첨단제조 AX(AI 전환)를 가속화하고 기술사업화, 국제혁신, 국제협력 등 산업 기술 혁신 전 주기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혁신 부원장’은 지역혁

신 기능을 재정비해 ‘5극3특’ 지역성장을 중심으로 제조기반, 공급망, 산업인재, 중견기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경영혁신 부원장’은 기관 경영전략과 성과 관리, 대외협력, ESG경영 고도화를 전담한다.

조직의 실질적인 실행단위도 대폭 강화됐다. KIAT는 부서장급 인사를 실행 중심으로 재편하며 전체 부서장 규모를 기존 47명에서 53명으로, 실장급은 34명에서 38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책기획 역량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윤중 KIAT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는 단순한 조직명칭 변경이나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KIAT를 산업기술혁신 플랫폼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행체계 개편”이라고 이번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산업혁신, 지역혁신, 경영혁신의 3대 책임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핵심 정책 과제인 AX 전환, 5극3특 지역성장 등 산업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현장의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K-외식, 호주인 입맛 사로잡았다

aT, 박람회서 바이어 상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6 호주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국내업체-현지바이어 간 주선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T는 지난달 25~27일 기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K-외식기업의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이 행사는 약 1만5000명이 찾은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전문 박람회다. 올해는 국내에서 413개 기업이 참가했다.

호주는 2024년 기준 외식매장 수만 6만 5000개에 이르는 오세아니아 핵심 외식시장이다. 한국관은 금번 오세아니아 지역 외식 박람회에 최초로 참가해 K-외식업체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aT는 박람회장의 중심인 레스토랑 구역에서 즉석떡볶이, 피자, 빙수 등의 메뉴를 갖춘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 기업 5곳



‘시드니 프랜차이즈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

/aT

과 함께 ‘한국관’을 꾸리고, K-외식기업의 매력을 뽐냈다.

현장에서는 사흘간 총 88건의 바이어 상담이 진행됐다. 참가업체 중 녹차도우를 활용한 건강한 피자를 전면에 내세운 기업은 박람회 기간 중 마스터 프랜차이즈 관련 MOU를 2건 체결하며 신규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또 K-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즉석떡볶이, 피자, 빙수 등에 바이어들의 호응도가 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입직원 72명 채용

13일부터 채용 홈페이지서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한난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 72명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총 모집인원 72명 중 ▲일반 분야 57명 ▲사회회평 분야(보훈 등) 7명 ▲고졸인재 분야 8명을 선발한다.

특히 한난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 기

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자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우대기준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류 접수부터 필기, 면접전행 전 과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기준(NCS) 기반 직무역량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입사 지원서는 오는 6월 13일부터 한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신입직원은 오는 9월 중 임용될 예정이며,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근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http://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 경북 집중호우 복구사업 97% 완료... 8월까지 마무리

2023년 21개 시·군서 피해 입어  
공공시설 2060건 복구 마쳐  
제방도로 포장 등 마감공사 진행

경북도는 지난 2023년 6~7월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도내 21개 시군에 대한 복구사업이 3년만에 완공될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기간 영천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피해가 났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문경 794mm, 영주 848mm, 봉화 782mm, 예천 731mm 등의 호우가 내려 피해가 컸다.

도내 전체 피해액은 사유시설 624억원, 공공시설 2296억 등 모두 2920억원으로 집계됐다. 29명이 사망(예천 17명, 영주 5명, 봉화 4명, 문경 3명)하고 1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컸다. 이재민 640가구 1162명이 발생하고 주택은 492동(전과 74동, 반과 74동, 침수 344동)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겼으며 농작물은 5010ha가 침수됐고 가축 10만2730마리가 폐사했다.



호암천 복구 전과 후 모습.

공공시설은 도로 394곳(피해액 229억원. 이하 단위 동일), 하천 및 소하천 635곳(1263억), 사방 및 임도 246곳(348억), 수리시설 34곳(42억), 상하수도 33곳(78억), 소규모 시설 659곳(207억), 기타 103곳(129억) 등 2104곳에 피해가 나 피해액은 2296억원에 달했다.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안동시 길안면과 예안면 및 녹전동, 상주시 동문동은 특별재난읍면동으로 지정됐다.

복구액으로 6513억원(국비 4986억,

도비 805억, 시군비 722억원)이 투입됐다. 시군별로는 예천군이 가장 많은 2066억원, 다음으로 봉화군 1917억, 문경시 1290억, 영주시 865억, 안동시 157억, 상주 103억, 그 외 115억원이다.

경북도는 피해가 난 그해의 응급복구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항구복구 사업에 들어가 지난해 말까지 97.2%의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2119건 가운데 2060건이 복구됐고 59건이 공사중이다.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문경 대하리천

등 20개 사업 59곳의 하천이다. 이들 하천에는 교량설치, 호안복구 등의 하상공정은 완료됐고 현재 제방도로 포장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들 공사도 8월까지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전보다 더 튼튼하게 완공해 호우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BTS 공연 맞춰 통합정보망 운영

부산시는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관련 행정·관광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정보망을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보망은 부산시 공식 누리집과 부산관광공사 관광포털 '비짓부산'을 통해 제공된다.

공연 정보는 물론 교통, 안전, 의료, 관광 등 분야별 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두 플랫폼을 연계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누리집에서는 공연장 정보와 함께 다중언어 행동요령, 응급 병원·약국 위치, 폭염 대응 수칙 등을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 승마 체험 유료화 시범 운영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유료 모델로 바꾸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역에서 유일한 말산업 전담 기관으로, '생애주기별 말산업 플랫폼' 사업을 운영해 왔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기와 결혼, 육아, 청장년기, 황혼기 등 인생의 각 단계에 맞춰 말과 교감하도록 짠 특화 프로그램이다. 그간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액 무료로 진행됐고, 매년 새 문이 이어질 만큼 지역 사회의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유료화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일반 시민에게도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기관으로서의 처음 시도하는 수익화 사업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 강도다리 치어 6만 마리 방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제31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일 경주시 양남면 진리항과 인근 연안에서 강도다리 치어 6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장에서 키운 것으로, 월성본부는 고리·새울·한울본부 방류 행사에도 강도다리 치어 9만 마리와 전복 치어 6만 마리를 방류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인근 해역의 생태환경 개선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1999년부터 어패류 방류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전복과 참돔, 넙치, 강도다리 등 약 776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기장군, 혁신 SMR 유치 결의대회 개최

일광읍발전위 산하 현안대책위 주도  
유치 필요성 알리고 관계기관과 협력

부산 기장군 주민들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를 지역에 들여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기장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혁신형 SMR 기장군 유치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지역 단체인, 위원, 주민 등 350여 명이 자리했다.

SMR은 발전 용량을 줄이고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원자로다. 이 가운데 i-SMR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차세대 노형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은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일광읍발전위원회 산하 현안대책위원회가 주도해 마련했다. 지난 19일 기장군 5개 읍·면 이장단연합회가 'i-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

원회' 발대식을 연 데 이어 후속 행사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날로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 평가위원회의 주민 여론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지선정 평가위는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정하는 절차를 맡는 기구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반영하는 여론 조사가 평가의 한 축이 된다. 주민들은 이런 시점에 맞춰 유치 의지를 안팎에 알리고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일광읍 현안대책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해 정종복 기장군수의 격려사, 주민대표의 결의문 낭독, 유치 촉구 구호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유치를 거듭 밝히며 여론 조사에서 찬성 여론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장군은 이날 말로 예정된 부지선정 결과 발표까지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남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선정

총 11개 과제... 사업비 33억 투입

경남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공정모델형 8개, 재제조지원형 3개 등 총 11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215개 로봇공정 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실증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과제 중 '공정모델형'은 로봇 공정모형을 제조현장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 품질 안정화, 고위험·고강도 작업 개선 등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재제조지원형'은 올해 시범과제로 도입됐다. 사용 이력이 있는 로봇을 분해·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을 교체해 성능을 보완한 재제조 로봇을 제조현장에 적용해 활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경남도는 시·군, 경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2020년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5년까지 55개 중소기업에 사업비 126억원을 지원했고, 생산성 평균 46% 향상, 불량률 평균 76% 감소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는 공정모델형을 통해 제조현장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제조지원형에서는 김해시 진례면에 구축된 한국로봇리퍼브센터의 장비와 기술 지원 역량을 활용해 신규 로봇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재제조 로봇의 현장 적용과 안전성 검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TPO 공동 홍보관 부산 부스에서 외국인 방문객과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 영양군, '재원창출 복지'로 소멸위기 돌파

새 먹거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목

영양군이 민선9기 첫 출발과 함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전략 마련에 나선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재원 창출형 복지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양군은 기존의 예산 투입 중심 복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구조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적은 인구 규모를 정책적 강점으로 활용해 군민 체감형 복지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인 재원을 확보해 정주 여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축·임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제조업 기반이 사실상 없는 영양군은 농업인과 축산인, 임업인 그리고 지역지역업자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양군은 복지 확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재원 창출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에너지 생산 사업이 아닌 복지 재원 마련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부산시, 서울국제관광전서 매력 홍보

TPO 의장 도시 자격으로 참여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규모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부산 관광의 강점을 알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6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부산의 관광 자원을 국내외 업계 관계자와 일반 참가객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행사로, '제5회 세계관광산업 콘퍼런스'와 함께 열렸다. 40여 개 국가·도시와 300여 개 관광 관련 기관·기업이 부스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 박람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부산은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의 의장 도시 자격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다. TPO는 도시 간 관광 진흥과 교류를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무국을 부산에 두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 반도체 성과급 기대에 웃는 백화점... '반세권' 명품소비 폭발

**경기 남부 VIP 수요층 부상  
롯데 동탄점, 매출 강세 지속  
현대 판교점, 고급 수요 확대  
갤러리아 광고, 프리미엄 호조  
해외 시계·주얼리 매장 활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남부 이른바 '반세권' 백화점들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확대 기대감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임직원들의 가치분소득 증가가 명품과 프리미엄 소비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기 남부권 주요 백화점의 매출 성장세는 전 점포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화성 소재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올해 1~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며 전 점 평균(20%)을 상회했고, 용인수



서울 시내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원·화성 등 반도체 벨트 수요가 집중된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점과 성남의 현대백화점 판교점 역시 각각 23%, 20%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갤러리아 광고 또한 동기간 명품 매출이 13% 증가하고 홈리빙과 가전 매출이 20% 이상 뛰는

등 반도체 호재의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특히 고가 럭셔리 상품인 해외 시계와 주얼리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같은 시기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은 성과급 지급 시기에 맞춰 지난해 하반기 입점한 반클리프앤애펬, 불가리, 티파니 등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매출이 폭발하며 관련 카테고리 매출이 199% 가까이 급증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또한 하이 주얼 리가 59%, 명품 브랜드가 37% 늘었고, 롯데백화점 동탄점의 럭셔리 시계·보석 매출도 45%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성과급 시즌에는 대형 가전 위주로 소비가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롤렉스, 까르띠에 등 하이엔드 시계와 주얼리, 프리미엄 패션 소비가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비 폭발의 배경에는 본격화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이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책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9.4% 증가한 371억 6000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DS 부문 일부 임직원의 경우 최대 6억 원 안팎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이 나온다. SK하이닉스 역시 초과이익분 배급(PS) 상한을 폐지하고 향후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임직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직장인 멤버십 '클럽프렌즈' 분석 결과, 대기업 임직원의 객단가가 30% 이상 높아졌으며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업계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내수 소비 강제로 직결되는 만큼, 경기 남부권 고객을 새로운 핵심 VIP 수요층으로 설정하고 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여러 기업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소비가 돌아선 데에는 미래에 받게 될 성과급이 이미 소비자 머리에 계산 돼 있어 미리 소비를 일으킨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GS샵, 빌레로이앤보흐 '서울' 조명 선편

**한국 전통 갓 디자인 적용  
무선·방수 기능 갖춘 2종**

GS샵이 독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빌레로이앤보흐(Villeroy & Boch)의 조명 컬렉션 '서울'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시리즈는 빌레로이앤보흐가 세계 주요 도시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도시 조명 컬렉션 가운데 하나다. 한국 전통 갓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화이트, 올리브그린, 차콜, 크림 등의 색상을 적용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이미지를 담았다.

제품은 탁상용 조명 '서울 2.0'과 높이 1.2m의 플로어 조명 '서울 플로어' 2종으



독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빌레로이앤보흐(Villeroy & Boch)의 조명 컬렉션 '서울' 시리즈의 모습. /GS샵

로 구성됐다. 충전식 배터리를 내장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수·방진 기

능을 갖춰 실내외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 또한 메탈 소재를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GS샵은 오는 9일 오후 11시 55분 TV 방송을 통해 '서울' 시리즈를 판매한다.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는 신한카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빌레로이앤보흐 와인잔을 증정한다.

방송에 앞서 8일에는 GS샵 모바일 앱에서 사전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서울 2.0'과 '서울 플로어'는 각각 10만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할 경우 총 2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국민카드 7% 즉시 할인도 적용된다.

/김서현 기자

## 롯데면세점, 정관장 손잡고 건기식 강화

**산리오 협업 제품 단독 출시  
체험 콘텐츠·매장 개선 추진**

롯데면세점이 정관장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단독 상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정관장은 KGC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에브리타임, 흥산정, 뿌리삼 등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에는 국내 시내점과 공항점, 인터넷면세점 등 전 채널에 입점해 있다. 올해 1분기 정관장의 롯데면세점 외국인 매출은 건강기능식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중국인 매출은 46% 늘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상품

개발과 마케팅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뿌리삼 단독 상품 개발과 IP 협업 에디션 출시 등 공동 상품 기획을 추진한다. 에브리타임은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산리오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올 하반기 추석 시즌에 맞춰 롯데면세점 단독으로 출시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협력을 확대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과 체험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주요 시내점 내 정관장 매장도 순차적으로 리뉴얼해 쇼핑 환경과 고객 접근성을 개선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협력을 확대하며 면세점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 배민B마트, 직거래 농축산물 매출 '쑥'

**산지 소싱 확대에 1~5월 매출 53% ↑**

배달의민족의 퀵커머스 서비스 B마트가 지역 농가의 직거래를 확대하면서 국내 산지 농축산물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마트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1~5월 B마트의 국내 산지 직매입 농축산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출하 시기에 맞춘 산지 소싱과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계절 과일 판매가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올해 1~5월 B마트 과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경남 하동·경북 고령산 딸기, 경북 성주 참외, 전남 담양·전북 고창 블루베리, 경남 함안·충남 부여 수박 등 지역 산지와 연계한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수박 매출이 271%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국산 블루베리(132%), 참외(103%), 딸기



B마트가 지역 농가와 직거래를 확대하면서 농축산물 판매가 크게 늘었다. /우아한형제들

(74%), 굴(64%) 등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현재 B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산지 농가와 업체는 전국 56곳이다. 협력 지역도 제주 서귀포부터 강원 양구까지 확대됐다.

배민은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하고 있다. 2024년 충청남도와 농산물 유통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전국한우협회, 경북 구미시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푸드**

**여름제철 과일 담은  
골드키위 케이크 2종**

신세계푸드가 여름 제철 과일인 골드키위를 활용한 케이크 2종을 선보이며 시즌 디저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세계푸드는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Zespri)의 골드키위를 활용한 '키위에 무너진 골드키위 케이크'와 '떠먹는 골드키위 케이크'를 출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특정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와 경험을 소비하는 이른바 '제철코어(Season-cor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여름철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인 골드키위에 주목해 이번 신제품을 기획했다. 대표 제품인 키위에 무너진 골드키위 케이크는 신선한 골드키위와 골드키위 잼을 사용해 상큼한 풍미와 은은한 단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케이크 상단에는 골드키위 슬라이스를 풍성하게 올려 과일 본연의 신선함을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 롯데웰푸드, 뉴트로 감성 '돼지바빵' 알린다

**돼지바 43년 헤리티지 활용**

롯데웰푸드는 대표 아이스크림 브랜드 '돼지바'의 신제품 '돼지바빵'을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 '돼지바 빵집 since 1983'을 오는 21일까지 서울 관악구 사로수길 인근에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아이스크림에 모나카를 더한 신제품 돼지바빵의 특징을 빵집 콘셉트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1983년 출시 이후 43년간 사랑받아온 돼지바의 브랜드 헤리티지에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New+Retro)' 감성을 접목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장은 돼지바 브랜드 캐릭터인 '돼장님'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 돼장님이 돼지바빵을 개발하게 된 스토리를 공간 전반에 녹여 방문객들의 몰입감을 높였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방문객이



'돼지바 빵집 since 1983' 팝업스토어 내부 모습. /롯데웰푸드

현장 팝키 기계를 통해 무작위 토포핑을 선택하면 해당 토포핑과 돼지바빵을 함께 제공하는 '커스텀 돼지바빵' 이벤트를 운영한다. 또한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 중인 '팝키 돼지바빵 꾸미기 콘테스트' 참여를 위해 초코펜을 활용해 모나카 과자를 직접 꾸밀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 월 1회 투여... '글로벌 비만치료제' 경쟁 치열

화이자, '월간 제형'으로 추격 속도 대응 제약 '큐어', 올해 첫 투약 추진 유한양행-인벤티지랩, 협업 연구 동국제약, 마이크로스피어 활용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후발 주자들의 반격이 치열하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양분하고 있는 주 1회 투여 주사제 시장에 화이자가 '월 1회 투여'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당뇨병학회의 제86회 과학회의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베로베나타이드 임상 2b상(VESPER-1, 2, 3) 상제 결과를 발표했다.

베로베나타이드는 비만치료제 후보 물질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투약 편의성의 극대화다. 화이자해는 해당 약물을 주 1회 투여하며 용량을 증량한 뒤, 월 1회 유지 요법으로 전환하는 임상 2b상 'VESPER-3'을 설계했다.

VESPER-3 결과, 주당 2.4mg의 베로베나타이드를 투여받다 투약 빈도를 줄인 당뇨가 없는 비만 환자에서 위약 효과를



비만도 주사로 관리하는 가운데, 환자 편의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제외하고 15.9%의 체중 감량 효과가 유지됐다. 특히 치료 32주 차까지 체중 감소가 멈추는 '정체기'가 관찰되지 않아 장기 투여 시 추가 감량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상에 참여한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 존 B. 부스 교수는 "비만 관리는 평생 지속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치료 유지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간 투여에서 월간 투여로 전환한 후에도 의미 있는 감량 효과와 우수한 내약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만치료제 개발의 무게 중심이 '월간 제형'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대응 제약은 지난달 바이오 스타트업 티온랩테라퓨틱스와 손잡고 기존 위고비 성분 세마글루타이드를 한 달에 한 번만 맞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착수했다. 양사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대응 제약의 '큐어'로 미세 약물 입자(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고 티온랩테라퓨틱스의 '뉴젝트스피어' 기술로 초기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한다. 약물이 초기에 한번에 방출되는 부작용을 막고 한 달간 일정하게 효능이 유지되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안에 첫 환자 투약을 추진해 제형 전환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한양행의 비만치료제 개발 전략도 기존 GLP-1 주사제의 미충족 수요를 정조준한다.

특히 장기 투여의 불편함과 환자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텍 인벤티지랩과 협업하고 있다. 양사는 비만·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IVL3021', 'IVL3024' 등을 구축했다. 위고비 성분을 처방한 IVL3021은 비임상 독성을 진행 중이며 마운자로 성분을 기반으로 한 IVL3024에 대해서는 제제 연구를 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자체 구축한 마이크로스피어 플랫폼을 활용하며 추격한다. 전립선암 치료제 '로렐린데포' 등에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방향 장기지속형 약물을 개발해 온 데 이어 비만 영역으로 연구를 확장한다. 비만 후보물질 'DKF-MB501'은 한 번 투약으로 3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비임상 단계에 있다.

국내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장기지속형 기술의 가치가 증명되고 동시에 다양한 파트너십이 활발해지는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LG생활건강 '피지오겔' 자외선 차단·모공 관리 여름행사로 합리적 준비

오는 14일까지 쿠팡 썸머뷰티 행사



LG생활건강의 더마 뷰티 브랜드 피지오겔은 여름을 맞아 피부 부과학노하우를 집약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무더위와 자외선으로 손상

될 수 있는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

오는 14일까지 쿠팡 썸머뷰티 행사를 통해 자외선 차단제 '데일리 모이스처 데라피어드밴스드 선크림 (30ml)' (사진)을 1+1 구성으로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피지오겔만의 바이오미믹 기술을 적용해 피부 장벽을 보호해 준다.

이와 함께 피지오겔은 브랜드 인기 제품들을 내놓는다. 모공 관리 효과를 갖춘 레드수딩 시카벨런스포어솔루션 선크림 (30ml), 피지오겔의 피부진정 특화 성분을 함유한 저자극 선크어 레드수딩 AIU V 어드밴스드 선크림 (40ml) 등을 혜택가에 구매할 수 있다.

피지오겔 관계자는 "피부 장벽 강화와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고려한 피지오겔의 선크어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며 "다양한 제품들로 온 가족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더마 선크어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라네즈 서울"서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제품 만나보세요"

아모레퍼시픽, 명동 매장 오픈 스킨케어·첨단기술 주제로 꾸며 개인 맞춤형 립 슬리핑 마스크 제작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의 브랜드 정체성과 뷰티 기술을 집약한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경험 기반의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명동에서 '라네즈 서울'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라네즈 서울은 브랜드 최초 글로벌 플래그십 매장이며 라네즈가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 '새로운 스킨케어'와 '첨단 기술'을 주제로 꾸며진 공간이다. 뷰티 과학을 연구개발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



'라네즈 서울' 전경. /아모레퍼시픽

한 뷰티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스포크 립 슬리핑 마스크 스월'의 경우 개인 맞춤형 립 슬리핑 마스크를 제작해 준다. 온도 제어 기술, 노즐 엔지니

어링 등을 통해 최대 45가지 조합의 향을 구현할 수 있다.

'비스포크 네오' 서비스에서는 라네즈 대표 제품인 쿠션에 150가지 색상 데이터를 적용한다. 1:1 컬러 분석으로 최적의

색상을 찾고, 아모레퍼시픽이 특허 출원한 제조 로봇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완성한다.

'비스포크 크림 스킨'은 인공지능(AI) 기반 스킨케어다. 피부 상태에 따라 25가지 솔루션을 제안하며 현장에서 약 20분 만에 고객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을 설계한다.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유닛 최필경 부사장은 "라네즈 서울은 뷰티, 기술, 디자인의 미래에 대한 라네즈 비전을 담은 공간"이라며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발견함으로써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단 하나의 제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CJ바사, '장 내 미생물' 연구·사업 확장

IHMC 서 포스터·세션 발표 진행

CJ바이오사이언스가 장 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성과부터 웰니스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 개발까지 미래 성장 동력을 다진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IHMC 2026)'에서 포스터 발표 3건과 세션 발표 2건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학계와 장 내 미생물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동시에 산업계와는 웰니스 사업 기회를 탐색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장 내 생태계를 모사한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미생물 이용 탄수화물(MAC)'을 연구해 왔다. 특히 4종의 MAC 복합 포물리를 성인 210명에게 적용한 결과, 개인별 장(腸) 유

형에 따른 맞춤형 섭취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

또 실험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임상 결과의 높은 유사성을 입증해 장 모사 시스템의 유용성을 높였다.

여기에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더해 개인 맞춤형 식이요법 등을 고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4분기 기존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알려진 '체중 감량 이후 요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장 내 미생물과 병리적 연관성이 높은 염증성 장질환(IBD) 관련 치료제도 개발한다.

회사 핵심 파이프라인 'CJRB-201'의 독창적인 항염증 기전을 규명했고 효능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 GC녹십자, 규제업무에 '레귤레이터' 도입

FDA·사내 허가문서 데이터셋 활용

GC녹십자는 인공지능 챗봇 '레귤레이터'를 개발해 의약품 규제 업무에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레귤레이터는 미국 식품의약품(FDA) 가이드라인과 GC녹십자의 사내 허가 문서를 데이터셋으로 활용한다. 허가 변경 분석, 유사 허가 사례 탐색, 규제 업무 방향성 제시 등의 기능을 갖췄다.

문서 검토도 가능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방대한 가이드라인과 내부 문서를 직접 살펴보고 허가 변경 근거를 찾는 데 수 시간이 소요됐지만 레귤레이터는 해당 업무를 30분 이내로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GC녹십자는 정보 보안은 강화하고 신뢰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부

데이터 접근시 보안 환경에서 운영하고 구축된 데이터셋 내에서만 답변을 생성하도록 설계했다. 외부 데이터 접근은 차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지적되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처럼 국내 제약 업계에서 규제 업무 중 '허가 변경 관리'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현업에 적용한 사례는 GC녹십자가 처음이다. 레귤레이터의 영문 명칭 'RegulAItor'에 대한 상표 출원도 완료하는 등 GC녹십자는 독자 구축한 브랜드의 자산 가치도 확보했다.

GC녹십자 이재우 개발본부장은 "레귤레이터 개발은 특정 부서에 국한돼 있던 허가 경험과 지식을 조직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새로운 미세 거품제형 고기능성 영양 담아

신제품 '마데카 크림 인 버블 세럼'



동국제약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마데카 크림 인 버블 세럼' (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고기능성 크림의 영양 성분을 담아내면서도 세럼의 산뜻한 사용감을 갖춘 스킨케어다. 쏘쏘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세 거품 제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동국제약 핵심 성분 센텔라아시타가 정량추출물, 피부 보습을 위한 판테놀 R X, 병풍을 활용한 피부진정 성분 등을 함유한다. 여기에 '3중 안정화 에어 유화 시스템' 기술을 적용해 유효 성분 흡수력까지 높인 것이다.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아침·저녁 세안 후 토너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면 된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로 여러 차례 덧발라 피부 수분 장벽도 관리할 수 있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신개념 버블의 탄력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며 "특히 메이크업 전, 피부 속 보습을 채워 화장 잘 먹는 피부를 연출하고 피부 겉에서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e-Topia**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kec.kea.kr

# SETIC 2026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2026. 6. 24(수) - 26(금)

호텔 농심 (부산시 동래구)

멈추지 않는 **기술**,  
확장되는 에너지의 **물결**





**포스코그룹,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전개**

포스코그룹은 연중 최대 봉사활동인 '2026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Global Volunteer Week)'를 진행한다. 7일 밝혔다.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9일간 이어지며 국내외 전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봉사주간 첫날 '안심(安心) 마을' 조성 활동에 참여했다. /포스코그룹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협약식**

NH농협은행-한화솔루션,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화솔루션과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임세빈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오른쪽)과 유재열 한화솔루션 한국사업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한화솔루션,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화솔루션과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임세빈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오른쪽)과 유재열 한화솔루션 한국사업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CFS, 'ILRC 물류로봇경진대회' 공식 후원**

쿠팡물류서비스(CFS)는 '2026 ILRC(International Logistics Robot Competition) 물류로봇경진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물류서비스 대표이사상'을 받은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금쪽이팀이 CFS 정종철 대표이사와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쿠팡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동아제약은 지난 4일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제15회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1억700만원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왼쪽)과 김형섭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제약



**BGF리테일-조리과학고, 상품개발 등 산학협력**

BGF리테일은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상품 공동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GF리테일 임형근 상품본부장(왼쪽 두번째)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손민호 교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GF리테일

# 마사회, 해외 교류경주 확대... 韓 경마 우수성 알린다

홍콩·프랑스·말레이시아 등 교류 한국식 치킨·김밥 등 K-컬처 전파



지난 5월 하순 홍콩 자키클럽 해피밸리 경마장에서 열린 'KRA 트로피 교류경주' /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올해 해외에서 친선경주를 잇따라 개최하며 한국문화 전파에 나섰다. 지난달 홍콩에 이어 이달에는 프랑스와 말레이시아에서 교류경주 행사를 기획했다.

외국 경마선진국과 함께 진행하는 친선 교류경주가, 현지에서 K-컬처를 전파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마사회는 밝혔다.

지난달 하순 홍콩 자키클럽(HKJC) 해피밸리 경마장에서는 'KRA(한국마사회) 트로피 교류경주'가 진행됐다. 현지 주최 측은 당일 행사의 메인프로그램을 한국 테마로 운영했다.

현지 팬들이 참여하는 K-팝댄스챌린지를 비롯해 관람석 주변 맥주기

에서는 한국식 치킨과 김밥 등이 소개됐다. 특히 현지 선호도가 높은 한국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팝업부스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6일 홍콩 사턴 경마장에서 열린 국제경주 'FWD 챔피언스 데이'

행사에는 방문객 4만여 명이 다녀갔다. 개막행사의 경우 K-팝스타 '화사'의 공연 등이 인기를 끌었다.

홍콩 경마는 연매출이 1380억 홍콩달러(27조 원)에 달하는 등 일본·호주

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달에는 프랑스에서 KRA 트로피 경주, 말레이시아에서 교류경주가 예정돼 있다.

마사회는 세계 각국과의 교류경주를 통해서 우호를 다지는 한편, 현지 경마계에 한국 경마의 역동성과 함께 문화 예술의 유기적 결합을 선보이는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희중 한국마사회 회장은 "글로벌 파트너들이 한국 경마를 존중해 우리 문화와 연계한 확대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교류경주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와 한국 경마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유한양행, 기부활동 등 ESG 경영 강화

창립 100주년 맞아 사회공헌 활발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상생과 소통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29일 충주시 노인복지관과 충주시 푸드마켓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충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기부 활동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에서 16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김선태와도 협업한다. 대중적 영향력을 입증한 스타 크리에이터와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선태가 직접 유한양행 본사와 연구소를 방문해 기업 역사, 연구개발 현장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오는 21일까지 유한양행 공



'유한양행X김선태' /유한양행

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는 고객 감사 행사도 진행해 추가 증정, 특가 혜택 등을 선보인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창립 100주년은 지난 100년간 유한양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들과 함께 만든 뜻깊은 역사"라며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광동제약, '무한도전 런' 공식 협찬

스포츠 마케팅 통해 소비자 소통

광동제약이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며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7일 서울 마포 소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6 무한도전 런 위드 쿠팡플레이'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추격전을 실제 도심에서 펼치는 축제다.

참가자들은 경찰팀과 도둑팀으로 나눠 기록 경쟁을 벌인 가운데, 무한도전 주인공 박명수, 정준하, 하하, 광희 등 유명 아티스트가 함께해 유쾌한 분위기를 높였다.

광동제약은 참가자들에게 '비타500

이온키 제로', '비타500 메시지 에디션' 등을 증정했다. 야외 활동 중 수분과 활력을 동시에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광동제약은 올해 식품안전 마라톤, 2026 휠라 키즈 티니핑 런, 버닝런 등을 지원했고 2026 N서울타워 글로벌 나이트워크,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등에서도 현장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경주와 공연에 '일상 속 소통'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담은 비타500만의 메시지가 더해져 색다른 추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타500만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정수

**부음** ▲여정자씨 별세, 김상욱(HTA 대표)·상부(세계은행 부총재)씨 모친상=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

인 9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 ▲박종학(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6대회장)씨 별세, 조족한씨 남평상, 박상순·주현·수현씨 부친상=6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02-2650-5121

## 에이피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주요 사업성과·재무실적 등 다뤄

에이피알이 글로벌 수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K뷰티' 중심의 책임경영 전략을 펼친다.

에이피알은 창사 후 처음으로 '2025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요 사업 성과, 재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대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도 공유했다. 에이피알은 제품 개발, 마케팅, 고객관리(CS) 등 뷰티 산업 전반을 아우

르며 임직원 역량 개발, 리더십 육성, 글로벌 인재 확보 등 인재 경영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환경 및 사회 분야에서 안전·보건, 공급망 등을 관리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환경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했다. 보고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ESG 지표도 반영했다. /이청하 기자

## UPA, 안전관리·동반성장 평가 최고등급

울산항만공사(UPA)는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선두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또 동반성장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올해 발표한 '2025년도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3년 연속이다. 전국 공공기관 104곳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만큼 사실상 최고 등급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하역안전지수 운영 및 전국 무역항 확대 노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제도 확대 ▲항만안전 학습회의 개최 등에

서 높게 평가받았다. 안전문화 확산 및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이나 수중 점검 등 현장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개선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도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4년 연속 최고등급이다. 울산지역에서 4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가 유일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코웨이,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마무리

코웨이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서울 구로구 및 금천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회 코웨이 환경사랑 그림공모전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가 만드는 지구'를 주제로 지난 5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 받았으며 관내 초등학교생 총 300여 명이 참여해 환경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대상에는 금천구 금나래초 6학

년 김은찬 학생이 선정됐다. 작품명은 '지구를 다시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으로, 환경 파괴로 상처 입은 생태계를 비어 있는 퍼즐 조각 너머의 풍경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에는 ▲박지우(6학년) ▲정이슬(1학년) 어린이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김윤슬(5학년) ▲문예주(5학년) ▲손에나(2학년) ▲정이안(3학년) 어린이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bada@

# 으뜸스시



Sushi Saikō

## 한 점의 스시에도 무게가 있어야 한다

▶ 절제 ▶ 집중 ▶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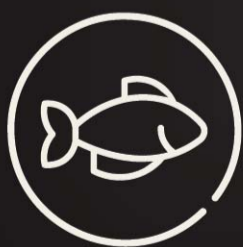
6/10 (수) 35호점,  
으뜸스시 포항효자점 오픈!



**2,200원 균일가**  
가성비 & 가심비  
모두 만족



**100가지 이상 메뉴**  
남녀노소, 가족 모두  
만족하는 메뉴 구성



**당일 작업 · 당일 판매**  
참치, 활어 중심의  
신선한 메뉴



**서울 및 전국 창업**  
자동화 시스템으로  
초보 창업자도 가능



**창업상담**

**1644-0622**

# 무고를 피하기 위한 형사고소 주의사항



김대혁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형사고소는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수단이다. 형사 절차의 무게감에 비해 다소 형사고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잘못된 고소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형사고소를 대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해당 고소가 무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무고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매우 간단하다. 누구든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물론 해당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에 대한 신고 또한 무고죄를 인정할 판결례가 있다.

보통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계절차나 형사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권한에 대한 기관에 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고의로서 본인이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이라 인식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돼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 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의 개념에 대해서 법원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 허위 부분이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경우 등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세부 사항을 착각이나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합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주관적 의견

이나 법적 평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명예훼손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무고죄가 다루는 영역은 '사실'에 대한 것이지 '의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서 '사실'의 기재와 '의견'의 기재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되고, '사실'의 기재는 '의견'의 기재보다 더 신중한 작성을 요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고죄의 성립은 실무에서 다소 엄격하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국민들의 형사사법절차의 발동을 위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피신고자가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신고자가 형사절차에서 입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분명히 인정돼야 할 사안 또한 존재한다고 보인다.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무고죄의 무거움을 유념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만을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 자주 오세요, 젠슨 황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은 이제 단순한 기업인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가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만으로 관련 기업 주가가 움직이고 시장이 주목한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젠슨 황이 아니라 그가 한국을 찾는 이유다.

과거 한국은 글로벌 정보기술 산업에서 반도체와 제조 역량으로 인정받았다. 엔비디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를 공급받는 고객에 가까웠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플랫폼과 콘텐츠, AI 서비스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젠슨 황이 한국에서 만나거나 협력

을 논의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봐도 변화가 읽힌다.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AI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다. 엔씨는 NCAI를 중심으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크래프톤 역시 AI 캐릭터와 콘텐츠 제작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AI 기술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IT 기업들은 해외 빅테크의 생태계 안에서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가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은 게임 기술을 AI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AI 시대의 소비자를 넘어 생태계의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젠슨 황의 방한은 한국 산업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국은 더 이상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나라에 머물지 않는다.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만들며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태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방한 자체가 투자나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 협력을 논의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반가운 것은 젠슨 황 개인이 아니다. 그가 한국을 찾아야 할 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네이버의 AI, 엔씨와 크래프톤의 새로운 도전이 그 이유다. 중요한 것은 젠슨 황의 방문 횟수가 아니다.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세계 AI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남는 일이다.

그래야 다음 AI 혁신의 순간에도 한국이 빠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한다. "자주 오세요, 젠슨 황."

/vitra@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 (음 4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입니다. 60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72년생 부귀공명을 누리게 됩니다. 84년생 불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덕이 없습니다.



49년생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1년생 일은 어렵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73년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50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4년생 좋은 운은 아니지만 큰 문제도 없습니다. 86년생 어려움은 있지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정진하세요. 63년생 옛친구나 동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내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87년생 허황된 욕심보다는 현실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52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미루는게 좋습니다. 64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됩니다. 88년생 주의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53년생 어려운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길합니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봅니다. 89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만족감이 필요합니다.



55년생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것입니다. 67년생 신중함보다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주위에 덕을 베풀면 더 큰 이득을 얻습니다. 91년생 운이 길하고 마음도 편한 하루입니다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윗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 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되었습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71년생 돈 쓸 일이 많아지고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5년생 모든 것이 평탄한 하루입니다.



## 김상회의四季 스승의 그림자

필자의 어렸을 적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로서 인생의 여정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스승의 역할과 의미가 지대하여 어찌면 부모님보다도 더 높게 여겼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음으로써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의 역할을 우러르며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급격하게 변했다. 그것도 아주 우려스러운 정도로. 제자가 스승을 폭행함은 물론이요, 부모들까지 교실에 들어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는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물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집안의 부모님들보다 스승들은 교육이 높았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교사는 학식이 높았고, 학식이 높을수록 인격까지 높다고 생각한 과거의 인식은 스승들에 대한 공경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사는 그냥 직업인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에게는 가슴 멍클하게 고마운 스승이 계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필자의 직업이 직업인 만큼 오늘의 필자가 있도록 깨우쳐준 분이다. 스승님은 당신의 이생에서의 복과 명을 아시고는 사주에 없는 재물을 바라지 않겠노라고 습관처럼 말씀했고, 그렇기에 공연한 말로 상담인에게 기대를 갖게 하지 않게 할 말만 하셨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공연히 기대를 갖게 하지 않았으니 필자가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스승님 말씀이다. 운이 박하거나 업장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열대 맞을 때를 받으려도 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지 못했던 복까지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이치라 하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한끼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레코드를 증가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1	8	6	7	4			
	8		6					
	4	9	1					6
							8	
6	1	8				9	7	2
	2							
2				7	6	9		
			8		2			
5	4	9	2		1			7

6			3			4	2	8
3			7	8	4			
8								
	1	4		5		9	2	
	5						4	
1	6		8		9	7		
			5	9	1			
5	7	6			3			

2	9	1	8	7	6	9	8
7	2	8	8	6	9	9	2
8	6	9	2	1	7	9	8
6	9	7	1	9	8	2	6
2	2	6	7	9	8	1	9
1	8	9	6	8	2	9	7
9	8	2	2	1	6	7	9
6	1	2	9	7	9	8	2
7	7	2	9	8	2	1	6

6	8	2	8	7	1	9	2	9
8	9	2	1	6	9	7	8	2
9	1	8	2	2	9	6	8	7
7	2	9	6	2	8	8	9	1
1	7	9	8	2	2	1	9	6
2	6	8	9	9	7	8	1	2
2	9	1	9	9	6	2	7	8
9	9	6	7	8	2	1	2	8
8	2	7	2	1	8	9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올해 서울지역 학생 수 '78만명'... 4년 새 10만명 줄었다

### 서울시교육청 '학급편성 결과'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 보여 초·중·고 학생, 전체 감소 59% 차지 맞춤형 교육 위한 학급 수 유지



/유투이미지

서울지역 학생 수가 4년 새 10만명 가까이 줄며 학령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서울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2022년보다 9만8266명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폭보다 학급 수 감소폭을 낮게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3.0명으로 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교·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전체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지난해 81만408명보다 2만8304명(3.5%) 감소했다. 2022년 88만370명과 비교하면 9만8266명(11.2%) 줄어 사실상 4년 만에 10만명 가까운 학생이 감소한 셈이다.

서울 학생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85만5309명, 2024년 83만5084명, 2025년 81만408명에 이어 올해 80만명선도 무너졌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 변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34만539명에서 올해 32만3802명으로 1만6737명 줄었다. 전체 감소 인원의 59%가량이 초등학생 감소분에 해당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초등학생 수는 39만3565명에서 32만3802명으로 6만9763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17.7%에 달한다. 저

출생의 영향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올해 전체 학급 수는 3만7294학급으로 지난해보다 803학급 줄었다. 감소율은 2.1%로 학생 수 감소율(3.5%)보다 낮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단순히 학급을 줄이는 대신 교육과정 운영 안정성과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고려해 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운영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이어졌다. 초·중·고 전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23.3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줄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8명으로 지난해보다 0.5명 감소했다. 2022년 22.4명과 비교하면 1.6명이 줄어 7.1% 감소했다. 중학교도 25.9명에서 25.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교는 24.7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2년 23.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수치로, 고교 단계에서는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지역 학교 수는 총 2092개교로 지난해보다 15개교 줄었다.

감소분 대부분은 유치원이었다. 유치원은 지난해 740개원에서 올해 724개원으로 16개원이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64개원이 줄어든 규모다. 원아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유치원 통폐합과 운영 조정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 수 편차 심화, 교원 정원 감축이라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학급 수 감소를 최소화해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했다"며 "학생 수 증장기 추세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상명대, 中 하북과기대와 디자인 교육 확대

### 15년 넘게 국제 교육협의의 이어와 디자인 분야 공동교육 기반 다져 학생교류 확대 등 협력 폭 넓혀



(왼쪽부터)김종희 상명대 총장, 중국 하북과기대 총장 이철근

상명대학교가 중국 대학과 10년 넘게 이어온 디자인 분야 국제 공동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교류와 실무 중심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7일 상명대에 따르면, 김종희 총장 일행이 지난 5일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 하북과기대학교를 방문해 양교의 디자인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상명대와 하북과기대의 협력은 2009년 상명대와 자매결연 및 복수학위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2013년 산업디자인공학 석사과정 공동 운영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교는 제품디자인 학사과정까지 협력 범위

를 넓히며 디자인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 기반을 다져왔다.

양교가 운영 중인 중의합작관학은 중국 현지 대학에서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을 함

께 운영하는 국제 교육협력 모델이다. 중국 교육부 인가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양교는 학생 교류 확대, 교육과정 개선, 실무형 디자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김종희 총장은 "하북과기대와의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 온 장기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자인 분야 공동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과 현장 역량을 함께 갖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최대 9만원 환급

### 30일권 사용자 대상 페이백 제공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서울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환급 대상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에 거주하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경우 카드 종류와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3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경우 총 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 카드와 모바일카드, 후불형 카드 모두 적

용되며 일반권,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부모권, 저소득층 권종은 물론 따릉이와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 실적에 관종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후불형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도 서울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충전 후 만기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받은 이용자와 단기간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마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진 기자

## "퇴촌토마토거리축제"서 여름 즐기세요

### 광주시, 오는 19일부터 3일간 열려

광주시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퇴촌 토마토거리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4화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퇴촌 토마토를 주제로 공연과 체험,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결합한 참여형 축제로 마련된다.

퇴촌토마토거리축제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오랜 기간 수도권 대표 농촌축제로 자리 잡으며 퇴촌 토마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올해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차별화를 꾀했다. 행사장에는 야외 워터 슬라이드 수영장이 운영되며, 열음 속에 숨겨진 호박밭을 찾는 '아이스 호박밭 헌터' 프로그램도 마련돼 무더위를 식히며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신선한 토마토와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생산자와 직접 소통하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판로 확대와 브랜드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축제가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한 안내 시설이 운영되며, 주차장과 교통 안내도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관리와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문화재단 관계자는 "퇴촌 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를 준비했다"며 "농업과 관광,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2

6월 8일 (월) 음력 : 4월 23일

수도권 날씨 17~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4/25, 동두천 15/25, 가평 15/25, 양평 16/26, 용인 17/25, 평택 16/25, 파주 15/26, 인천 16/24, 수원 17/25, 서울 17/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군, 호르무즈서 이란 드론 2대 추가 격추 /사진 뉴시스

▲미 오하이오주 톨레도 주말 축제에서 총격사건... 여러 명 다쳐

▲日, 아세안 석유비축 지원 올여름 조사 개시... '최우선국'에 필리핀

▲시진핑 최측근 차이치 중앙당교 교장 검임... "2인자로 위상 높아져"

▲이란 외무부, 美의 레이더 시설 공격은 "휴전 합의 위반"

▲美헤그세스, 프랑스 노르망디 방문해 "유럽, 재래식 방위 먼저 책임져야"



반도체 성과급에 반세권 백화점 유례없는 호황 L1



Life

월 1회 투여 비만치료제 글로벌 경쟁 L2



# “소통의 벽 허무는 문자통역... 농·난청인 동등한 참여 꿈꿔”



새벽을 여는 사람들

## 에이유디 박원진 상임이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소통의 벽'이 존재한다. 회의와 수업, 병원, 행정기관 등 많은 현장은 여전히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소리가 문자나 수어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농·난청인은 같은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소통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문자통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곳이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에이유디를 이끄는 박원진 상임이사는 대학 수업과 임용시험 준비 과정에서 자막과 문자 지원의 부재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농·난청인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동등하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박원진 에이유디(AUD) 상임이사.

/에이유디

하는 일이다. 기관 대상 문자통역, 개인 대상 문자통역, 서울 문자통역, 경기·인천 문자통역, 조합원 문자통역, 온라인 문자통역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소통(SOTONG) 앱과 웨어터이핑 플랫폼으로 연결해 이용자가 더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웨어터이핑은 문자통역사가 실시간 문자통역을 제공하고 농·난청인이 스크린이나 스마트기기 화면을 통해 문자통역을 제공받는 플랫폼이다. 소통 앱은 문자통역사와 농·난청인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이다. 박 상임이사는 “문자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매번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게 필요한 순간에 문자통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재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에이유디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성과는 문자통역이라는 개념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서비스로 만들어온 점이다. 박 상임이사는 “에이유디가 시작할 당시만 해도 문자통역은 제한된 현장에서만 낮설게 존재하던 지원이었다”며 “이제는 사회적경제 행사, 공공 세미나, 대학 수업, 기업 교육,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현장에서 문자통역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 ◆AI로 넓히는 접근성, 사람으로 채우는 소통

AI 음성인식 기술 발전은 에이유디 사업에도 새로워질 가능성을 열고 있다. 회의나 강의, 온라인 행사에서 실시간 자막 제공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농·난청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상임이사는 AI가 문자통역을 대신하기보다 더 많은 현장에 문자 기반 소통을 확산시키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술만으로 모든 소통 장벽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박 상임이사는 “소통에는 단어 이상의 맥락이 있다”며 “회의 분위기, 말하는 사람의 의도, 전문용어, 농담, 감정, 현장 상황은 단순히 음성을 문자로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에이유디는 앞으로 문자통역 지원을 지역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난청인 당사자를 위한 펠로우십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펠로우십은 농·난청인 체인지메이커가 각자의 분야에서 도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문자통역, 멘토링, 네트워크 연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상임이사는 “농·난청인 당사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현재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줄의 자막, 한 명의 문자통역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며 “농·난청인이 매번 ‘저는 이렇게 소통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개인의 절실함에서 출발한 문자통역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의 출발점은 박원진 상임이사의 개인적 경험이 있었다. 박 상임이사는 대학에서 초등특수교육을 공부하던 시절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수업 내용을 노트북으로 받아 적어주는 지원을 처음 경험했다. 그는 “지원이 있는 수업과 없는 수업의 이해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몸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특수교사로 일하며 공립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인터넷 강의에 자막이 없어 공부 자체가 쉽지 않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놓치는 부분이 생겼다. 박 상임이사는 “이건 나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농·난청인이 교육과 일상에서 계속 겪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농·난청인이 필요한 순간에 정보를 놓치지 않고 동등하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문자통역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당시 수어통역 서비스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문자통역 서비스는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 박 상임이사는 “농·난청인 모두가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자 정보가 더 익숙한 사람에게는 말소리를 실시간 문자로 전달하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통 장벽 없이’...청각 유니버설 디자인

에이유디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소통 장벽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박 상임이사는 “농·난청인이 누군가의 배려가 있을 때만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에이유디의 AUD는 Auditory Universal Design, 즉 청각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뜻한다. 박 상임이사는 “청각의 유니버설 디자인은 소리 중심의 사회를 문자, 수어, 기술, 사람의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사회로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유디의 강점은 당사자의 문제의식과

### 특수교육 준비하며 자막 부재 절감 개인 불편 넘어 구조적 문제 깨달아 농·난청인 위한 문자통역 시스템 결심

### 소리중심 사회를 문자·기술로 전환 플랫폼 활용해 접근성·대중성 높여 세미나·기업교육 등 다양한 현장 정착

### AI, 문자기반 소통 확산의 보조수단 분위기, 의도 등 기술만으로 표현 불가 지속가능한 소통 위한 펠로우십 확대

전문 문자통역 서비스, IT 플랫폼, 협동조합 구조가 함께 결합돼 있다는 점이다. 박 상임이사는 “에이유디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농·난청인, 문자통역사, 직원, 후원자 조합원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방향은 문자통역을 현장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체계로 넓히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문자통역사가 말소리를 실시간 문자로 전달하면 농·난청인은 행사장 스크린이나 스마트기기 화면을 통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웨어터이핑·소통... 일상 인프라로

현재 에이유디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문자통역 서비스를 더 안정적이고 넓게 제공



에이유디 행사 현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문자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에이유디 펠로우십 참가자들이 출항식을 진행하고 있다.

## 메트로 한줄뉴스



▲‘메시 휴식’ 아르헨티나, 월드컵 평가전서 온두라스 2-0 제압  
▲이정후, 컵스전 2안타에 도루·득점...14경기 연속 안타 행진 /사진 뉴시스

▲시구자로 나서는 젠슨 황...두산 김원형 감독 “나에게도 좋은 경험 될 것”  
▲“쓰니 올라!”...태극기 든 멕시코 팬 800명, 홍명보호에 ‘기운 듬뿍’

▲카카오페이지 인기 웹소설 ‘괴담출근’, 웹툰으로 나왔다  
▲달항아리·왕실 책장 한자리에...한국고미술페어 11일 개막